



# GLOBAL X ETF 랩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2021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브랜드  
연금자산/은퇴설계부문 선정



2021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증권부문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1위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1588-6800]** ■ 투자자는 랩계약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랩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랩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 Global X ETF 랩계약의 수수료는 일반형 연2.4%(분기 0.6%후취), 혼합형 연1.2%(분기 0.3%후취), 성과보수 부분은 고객과 개별 합의입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ETF 거래 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지세율로 원천징수되며, 현지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배당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 배당금 발생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높을 경우 차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타 RP 운용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세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1-01468호 (2021.03.25~2022.03.24) ■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954호 (2021.09.14~2022.09.13)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 투자와 연금

AUTUMN 2021 Vol.04

➤ FOCUS

주택가격과  
금리의 폭발력

➤ ASSET RESET

전기차 ETF,  
내게 맞는 상품은?

➤ INVESTMENT DIARY

중개형 ISA로  
국내 주식 투자 혜택

ESG

장기투자 **룰**을 바꾸다

죄송합니다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의 구체적 결과는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 검색해 보세요

전문가가 선정한 다양한 글로벌 펀드와 수익률의 차이, 직접 확인하세요.  
변액보험을 알면 알수록, 미래에셋생명입니다

•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에서 영상광고도 확인하세요 life.miraeasset.com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등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1-01496 호 (2021-05-18)

행복한 은퇴설계의 시작 -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평범한 한국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 미래에셋 코어테크 펀드

반도체, 핀테크, 디스플레이, 친환경차, 2차전지... 뛰어난 기술로 글로벌 IT를 선도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환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기업에 투자하세요.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설정 이후 수익률
코어테크	3.87%	41.06%	86.08%
종류A	3.16%	39.21%	81.62%
참조지수	0.39%	31.79%	50.84%

세전기준, 출처: 제로인, 기준일: 2021.08.31

미래에셋 코어테크 증권투자신탁(주식) 설정일: 2019.10.21 순자산: 2,879억 참조지수: KOSPI200 환매방법: 제2(3)영업일 기준가로 제4(4)영업일 지급 \*0 15시 30분 경과 후 환매 청구 시 적용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연 1.435% (운용 0.72%, 신탁 0.02%, 판매 0.68%, 일반사무: 0.015%)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금리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6206호 ■ 미래에셋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0388호 (2021.09.13~2022.09.12)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 투자의 끝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바이러스보다 강합니다.

두려움에 지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자는 결국 이깁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엄격하게 우량자산을 찾아, 정직하게 좋은 상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직과 고객동맹의 정신으로 힘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 글로벌 채권 | 글로벌 펀드 | 글로벌 ETF | 연금 | ELS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6800]**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2548호 (2020.06.02 ~ 2021.06.01)

# C O N T E N T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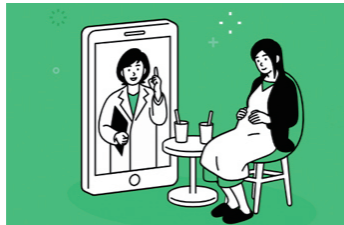
## COVER STORY ESG 장기투자 물을 바꾸다

- 08 연금 투자자는 왜 ESG에 '시선집중' 해야 하는가
- 10 ESG 투자의 특성과 핵심테마
- 14 연금 가입자의 ESG 투자
- 16 ESG 주식형 펀드, 어떻게 운용되나? 투자 시 고려할 점은?
- 18 ESG 주식형 ETF, 어떤 연금 투자자에게 좋은가?
- 20 ESG 채권형 펀드 투자매력은?

## GLOBAL SENIOR STORY

시니어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

34



- 34 **일본** 고령화·코로나 협공에 일본 의료 암반규제 무너져 '라인닥터' 등 의료 서비스 등장  
요코하마 크루즈에 보낸 스마트폰, '온라인 진료' 신호탄 되다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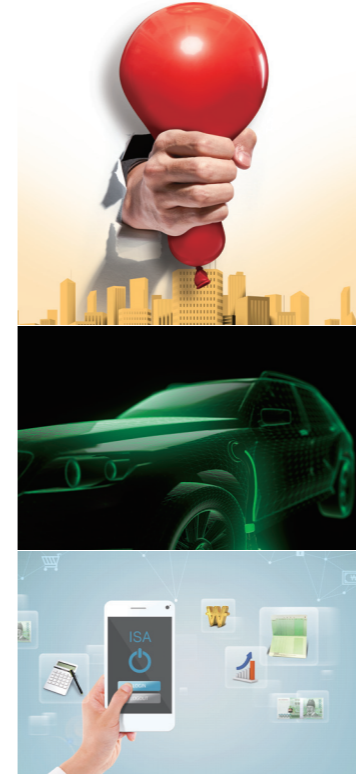


- 38 **독일** 40주년 맞은 독일 노이비베르크 시니어 센터의 특별한 활동  
시니어 센터, '액티브 시니어'의 요람이 되다

42



- 42 **대만** 대만의 돌봄 서비스 매칭 플랫폼 'Care724' 탄생과 비전  
7일, 24시간 쉽없이 연로한 어르신 돌봐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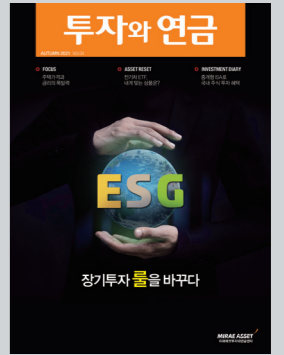


22

26

30

- 04 **COLUMN** 투자 살롱  
무작위를 패턴으로 바꾸기
- 22 **FOCUS** 특별기고  
주택가격과 금리의 폭발력
- 24 **ASSET DESIGN** 연금투자 톺아보기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초과됐다고? 어떻게 해야 하지?
- 26 **ASSET RESET** ETF, 이것이 궁금하다  
전기차 ETF 뜬다는데 내게 맞는 상품은?
- 30 **INVESTMENT DIARY** 연금제도 활용법  
중개형 ISA로 국내 주식 투자하면 어떤 혜택 있나요?
- 46 **CARTOON** 흥승우의 올드  
스스로 할머니
- 50 **ESSAY** 그들 부부의 전망 좋은 집  
“우리 한 이불 부부가 아니라 한 창문 부부인가 봐”
- 54 **BOOK & INSIGHT** 김경록의 <데모테크가 온다>  
인구구조와 기술혁신에 투자하라



AUTUMN 2021  
Vol.04

**발행처** (주)엑셀런스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302호(여의도동, 센터빌딩)  
Tel 02-2038-8980  
Fax 02-3273-8981

**발행인** 윤길주  
**편집인** 안성모  
**아트디렉터** 이민자  
**사진** 이원근, 강현욱  
**교열** 중앙일보어문연구소  
**이미지** gettyimagesbank·뉴스·연합뉴스  
엑셀런스코리아DB·Shutterstock

**등록일** 2020년 11월 30일  
**등록번호** 영등포 사 00056  
**간별** 4회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출력·인쇄** 삼화인쇄주식회사(02-850-0850)

## 투자과연금

### 정기구독 안내

<투자과연금>은 새로운 개념의 투자 매거진입니다.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투자 및 연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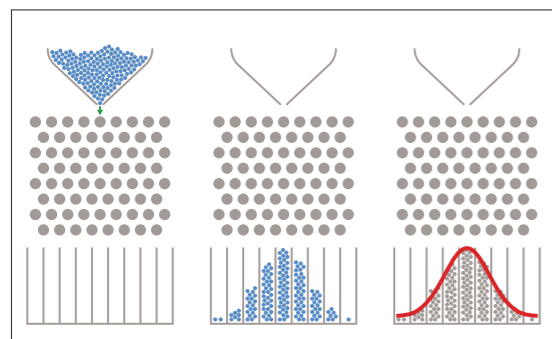
**정기 구독료(연 4회)** 1만9000원(배송비 포함)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2-2038-8980  
insight@insightkorea.co.kr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900-911582  
예금주: (주)엑셀런스코리아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작위를 패턴으로 바꾸기

Editor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대표

■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Fortuna)는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불안정한 구체(球體)에 서서 운명의 바퀴를 돌린다. 가끔 눈을 가리고 있기도 한다. 카지노의 룰렛처럼 뭐가 닳칠지 모른다. 운명의 바퀴를 한 번 돌리면 병원 진료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세상이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했다. 주식시장도 그러하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를지 내릴지 한 치 앞을 모른다. 한껏 행복감에 젖어 있다가 자고 일어나니 아수라장으로 변할 때도 있다. 포르투나의 변덕을 인간은 지혜를 통해 피해보려고 했다. 무작위(randomness)로 일어나는 일을 패턴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이다. 이 개념을 잘 구현한 게 19세기에 프랜시스 골턴(F. Galton)이 고안해낸 퀴нк크스(Quincunx)라는 장치다. 일명 골턴보드(Galton Board)라고도 한다.



슬롯머신처럼 생겼는데, 널빤지에 못을 가지런히 박아놓고 위에서 깔때기 같은 장치를 통해 구슬을 하나씩 떨어뜨린다. 구슬이 못에 부딪히면 오른쪽, 왼쪽으로 갈 확률이 반반이다. 이런 못이 여러 행으로 되어 있다.

맨 밑에는 칸막이를 친 좁고 긴 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구슬이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이들 칸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얼핏 생각하면 각 칸마다 비슷한 개수의 구슬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구슬은 정규분포 모양으로 쌓인다. 중앙에 많이 쌓이고 양쪽으로는 적게 쌓인다. 임의적인 것, 무작위적인 것들이 모이니 패턴을 보인 것이다. 인터넷에 퀴нк크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인터넷상에서 똑같은 모의실험이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권한다.

현실에서 무작위를 패턴으로 바꾼 대표적인 예가 보험이다. 과거에는 해상 사고가 우발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우발적인 사고로 화물을 잃기라도 하면 집안이 망하고 노예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무작위를 해상보험을 통해 패턴으로 바꾸면서 선주들과 보험회사 모두 상생(相生) 게임이 되었다. 육상 사고도 마찬가지다. 한 개인에게 교통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전체로는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는 21만6300건이었으며 2018년은 21만7100건이었다. 2019년을 한 번 예측해보시라. 실제 건수는 22만9600건이다. 개인들의 교통사고는 무작위적이지만 집단의 교통사고는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들을 집단으로 모아 자동차보험을 운영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다.

투자시장도 무작위를 패턴으로 바꾸는 골턴보드 같은 장치가 있다. 바로 분산과 장기투자다. 분산은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을 여럿 섞는 것이고 장기투자는 투자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우연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장기적으로 패턴을 활용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변덕스런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에 대응하는 지혜는 인내를 갖고 오래 참는 일이다. ETF, TDF 등 분산된 금융상품으로 장기투자하는 것이 변덕스런 주식시장을 길들이는 정도(正道)다. 프로라면 무작위가 아닌 패턴에 투자해야 한다.

자산을 오래 보유해서 투자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아 이들을 섞어서 보유하면 확정적으로 무작위성을 줄여 수익을 높여준다. 이를 일컬어 '공짜 점심'이라고 한다. 가장 좋은 자산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라고 말하는 이유다. 분산의 이점을 살린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펀드다.

장기투자 역시 무작위적인 주식수익률이 일정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분산처럼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패턴을 이룬다. 미국 S&P500 주가지수의 1950~2017년 수익률은 평균 10% 정도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수익률은 최고 52%에서 최저 -37%까지 범위가 매우 크다. 5년을 보유하면 최고 28%에서 최저 -2%로 수익률 변동이 크게 줄어든다. 15년을 보유하면 최고 19%에서 최저 4%로 편차가 줄어들고 20년을 보유하면 최고 18%에서 최저 6.5%가 된다. 장기 평균수익률에 수렴한다. 이 정도면 야생마가 재갈을 물린 말처럼 길들여져 움직인다. 여기에 한 차례 더 재갈을 물려 안전하게 다스리고 싶으면 적립식 혹은 정액분할식으로 투자하면 된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위워크(WeWork) 등 투

자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자, 주식 종목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신은 트렌드 투자에서 실패한 예는 없다고 답했다. 무작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보이는 것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트렌드에 속하는 여러 기업을 산다. 덧붙여 장기투자는 기본이다. 프로 도박사는 임의적 사건을 패턴화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지만 아마추어는 운을 믿고 올인한다.

무작위의 가장 큰 위험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패턴이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가짜 패턴이다. 종목의 과거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런저런 해석을 하면서 패턴을 찾고 여기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격이다. 무언가 질서를 찾아내려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사막에서 신기루가 보이듯이 갈급하게 구하면 마음에서 원하는 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우연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장기적으로 패턴을 활용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변덕스런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에 대응하는 지혜는 인내를 갖고 오래 참는 일이다. ETF, TDF 등 분산된 금융상품으로 장기투자하는 것이 변덕스런 주식시장을 길들이는 정도(正道)다. 프로라면 무작위가 아닌 패턴에 투자해야 한다. **M**



# ESG

## 장기투자 **룰**을 바꾸다

- part 1 \_ 연금 투자자는 왜 ESG에 '시선집중' 해야 하는가
- part 2 \_ ESG 투자의 특성과 핵심테마
- part 3 \_ 연금 가입자의 ESG 투자
- part 4 \_ ESG 주식형 펀드, 어떻게 운용되나? 투자 시 고려할 점은?
- part 5 \_ ESG 주식형 ETF, 어떤 연금 투자자에게 좋은가?
- part 6 \_ ESG 채권형 펀드 투자매력은?

■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ESG 투자 열기가 뜨겁다. 국민연금은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고, 2020년 11월에는 아시아기후변화투자그룹(AIGCC)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2년까지 운용 자산의 50%에 ESG 전략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10월부터 ESG 전략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 프로세스 및 포트폴리오 운용에 ESG를 반영하는 ESG 통합체계를 구축해 운용 중이다. 그 밖에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전부 ESG 투자를 실행 중이며, 점점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ESG 투자 열기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주요 연기금, 국부펀드,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한국보다 앞서서 ESG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2020년 초에 전 세계 투자기관 소속 임원급 인사 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1%는 “최근 1년간 ESG 등 비재무 성적표가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ESG가 대관절 무엇이길래, 이처럼 글로벌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ESG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어떠한 배경에서 ESG라는 개념이 탄생했고, 지금까지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ESG가 왜 중요해졌는지 알아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처럼 오랜 기간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연금 투자자라면 특히 그렇다. **M**



# 연금 투자자는 왜 ESG에 '시선집중' 해야 하는가

Editor 윤치선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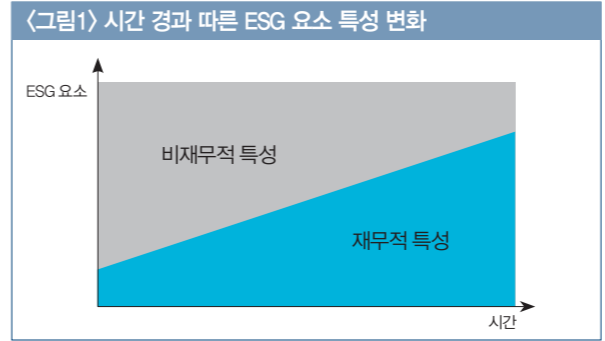
■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 세계 ESG 관련 투자자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22조8390억 달러 정도였던 전 세계 ESG 관련 투자자산 규모는 2020년 35조3010억 달러로 증가했다. 4년간 54.5%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ESG 투자 열풍이 뜨겁지만 정작 ESG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렵듯 환경과 사회를 위한 착한 기업경영 방식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금처럼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ESG를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해서는 곤란하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ESG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 ESG 경영 잘하는 기업이 길게 보면 이익도 증가한다

연금 투자자가 ESG를 알아야 하는 첫째 이유는 ESG 요소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 단어들의 집합체가 ESG는 아니다. ESG는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 환경과 인류에 대한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는 경제 및 경영 철학이자 행동 원칙'(박태영·윤건용 저 <ESG의 구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이 이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ESG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ESG는 이익을 포기하고 착한 기업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이익 또한 증가할



자료: <ESG의 구조>(박태영·윤건용, 2021.7)

것이라는 것이 ESG의 핵심 개념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1>을 보자. X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왼쪽 끝이 현재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먼 미래가 된다. Y축은 ESG 요소의 특성이다. 그림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ESG 요소의 비재무적 특성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회사가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했다. 지금 당장 들켜지는 않았다. 이 경우 해당 사실 자체는 재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폐수 방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벌금, 주가 폭락 등 기업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ESG 요소가 단기적으로는 비재무적 요소로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재무 요소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ESG의 핵심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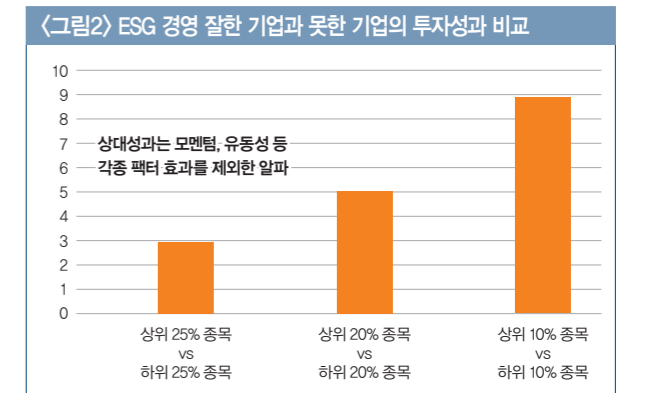
## ESG 우수 기업이 장기 투자 성과도 높다

'ESG 요소가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개념은 연금 투자자들이 ESG 투자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이어진다. 장기적인 재무적 성과의 개선은 장기적인 투자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3년 전 세계 12개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AMWG(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에서 ESG 관점을 결합한 투자방식과 투자성과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물이 2004년 6월 발표됐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요약하자면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이슈가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영향이 심대할 수 있다(...중략...). 이러한 결과는 해당 이슈의 효과적인 관리가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지에 대한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인 재무분석과 그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해당 이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5년 하버드대학에서 나온 보고서도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의 장기 투자 성과가 우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2>는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ESG 평가등급 상승폭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들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들 간의 주가 상승률 차이가 연평균 8.85%에 달했다. ESG 요소에 대해 대응을 잘한 기업이 못한 기업 대비 장기적으로 우월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 ESG 평가등급 상승폭 기준으로 상위-하위를 나눔  
자료: Khan, M.N et al., "Corporate Sustainability: First Evidence on Materiality,"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2015

ESG는 아직 일반 연금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속도로 ESG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합당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관투자가 못지않게 장기간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연금 투자자들도 ESG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 일부를 ESG 관련 투자상품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M

## ESG 투자의 특성과 핵심테마

Editor 박영호 미래에셋증권 I&P리서치팀 이사

■ ESG 투자는 일반적으로 환경적(Environmental), 사회적(Social) 영향 및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 측정 체계에 통합, 반영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환경보호나 사회적 책임에 유익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자 전반에 부합하는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을 선별해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투자성과를 거두는 것이 ESG 투자의 목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의 ESG 관련 공시 의무와 리스크 관리 강화,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전략 추진, 연

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원칙 수립 및 전략 실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세심하게 고려할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 ESG 투자의 탄생

산업혁명 이후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산업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환경 위협이나 노동·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대두와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에서의 전 세계 산업구조 재편

을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됐다. 미국, 유럽 등 선진권이 금융자본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서구의 산업화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는 선진권의 계층격차 확대, 개도국으로의 환경·사회적 문제 확산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엔은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준수와 글로벌 분업체계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인 Global Compact(2000년)를 출범시킴으로써 ESG의 기초를 만들었다. 산업자본 및 기업 차원에서의 환경, 사회적 책임 준수 촉진은 이후 ESG 개념 정립(2004년)과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제정(2006년)을 통해 금융투자 영역에서 전개됨으로써 ESG와 투자를 결합한 적극적 개념이 수립됐다.

책임투자원칙(PRI)은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ESG 이슈 통합 ▲소유권(ownership) 정책 및 관행에 ESG 이슈 통합과 능동적 투자자로서 역할 수행 ▲피투자기업에 ESG 이슈 관련 정보공개 요구 ▲투자업계 내에서 PR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을 촉진 ▲PRI 이행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PRI 이행에 관한 활동 및 진행 상황 보고 등 6개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 지속 가능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통합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자자 가이드를 마련했다.

ESG 투자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PRI 서명 급증 추세와 더불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 합법화 추진, 2018년 이후 PRI 서명기관의 최소 자격 요건 부과 및 정기 검증 시행 등을 통해 PRI의 신뢰도는 강화되는 중이다. PRI 서명은 현재 기관투자자들이 자산시장에서 ESG 투자자로 인정받는 주요 자격이 되었으며, ESG 투자 관련 대표적인 기관투자가 네트워크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 ESG 투자의 특성

ESG 개념이 수립된 배경을 보면, ESG 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나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SR은 기업의 본업 이외의 기부행위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순수 활동이 추가되며, SRI는 환경 및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투자 대상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함으로써 투자성과까지 제한하는 여지를 두게 된다. 이와 달리 ESG 투자는 ESG 요소를 면밀하게 평가해 투자에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투자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우선시한다. 다시 말해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이 ESG 투자의 본질이다.

이러한 본질을 감안하면 ESG 투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ESG의 주도권을 갖는다. 주로 연기금, 국부펀드 등 글로벌 대형 기관투자자의 오너십(ownership)을 통해 기업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에서 ESG에 부합하는 新성장 비즈니스를 창출, 장기 기업가치를 제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유·화학 산업 등이 막대한 R&D 비용 지출을 수용하면서 전기차·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비즈니스로의 대전환을 시도할 수 있게 된 주요 이유다.

둘째, 장기투자를 통해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은 글로벌로 연결된 사회·개인·기업 등 관련 이해당사자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결부된 문제다. 따라서 ESG로 규정된 요소 자체가 기본적으로 장기적 과제다. 기후변화 대응,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혁신과 연결된 노동 문제 등은 대표적인 장기 과제이면서 ESG의 주요 요소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ESG에 투자가 결합되면 장기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친환경 비즈니스 중심의 글로벌 산업재편과 같은 ESG의 투자테마는 유의미한 투자성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미래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중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셋째, 기술혁신과의 시너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된다. 자동차, 정유화학, 화력발전의 탄소배출 등 외부불경제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배출저감 기술로 인해 쉽게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2차전지·전기차, 첨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충전시스템 분야 등에서 전례 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IT 관련 신기술 적용이 에너지원 대체, 탄소중립과 같은 그린혁명 과제에 있어서도 순조로운 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혁신 시대에 ESG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외부성(externality)은 어떤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유발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얻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이다. 대가를 얻거나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는 시장실패를 야기한다. 이때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부정적 외부성 또는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화학공장이 있다면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화학공장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이익을 편취하게 된다.

### ESG 투자의 핵심 테마와 이슈는?


3가지 중심 주제별로 ESG 투자의 테마를 살펴보면, 먼저 환경(E) 관련 주제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와 탄소(CO2) 배출 문제가 현재 대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문제는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산업화 진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국제사회는 1972년 유엔 환경활동 조정기구(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설립, 1992년 리우 환경회의 개최, 1997~2005년 교토의정서 채택 및 발효, 2015년 파리기후협정 체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제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왔다. 코로나19 대확산과 최근 수년간 전 세계 곳곳의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난 증가를 계기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극대화됐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잔여 온실가스를 흡수해 탄소의 실질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밀레니얼 세대(2030세대)의 환경 중시 투자 태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및 안전 인식 고조는 ESG 투자에서 특히 환경(E) 테마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는 2차전지·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클린테크(clean technology)' 기술혁신 트렌드와 결합해 ESG 투자의 중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S) 관련 주제에서는 노동조건, 직장 내 인권 문제, 기업과 지역사회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 등이 오랫동안 주요 과제로 논의돼왔다. 노동조건인 경우 예를 들면 글로벌 기반 제조업체의 공급망에서 하청근로자의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가 주요 관심 대상이 됐다.

인권이나 이해관계 상충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는 1970~199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미국 기업과 펀드매니저들의 개입을 들 수 있다. GM 등 미국 기업들의 인종차별 산업현장에 대한 현지 투자 철회나 펀드매니저들의 역내 활동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행위 등은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는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를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EO와 이사회 간의 올바른 권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사회 구성은 다양성과 합리성을 갖췄는지, 임원 보상은 정당한지,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권 로비나 기부행위 및 뇌물·부정부패 문제가 있는지, 조세 투명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주로 진단·평가해 투자 가능한 회사를 선별한다. 

글로벌 지수산출기관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2007년부터 ESG 지수를 개발해왔으며, 현재 18개의 ESG 주가지수와 9개의 ESG 채권 지수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수들의 지역별 지수도 운영 중이다. MSCI의 ESG 요소는 10개 주요 테마와 37개 세부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별로 세부 이슈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두고, 산업평균(peer group)과 해당 기업의 ESG 비교평가를 시행해 ESG 지수 산출에 적용하고 있다. ESG 평가등급은 AAA~CCC까지 매겨지는데 AA·AAA는 'leader', BB·BBB·A는 'average', CCC·B는 'laggard'로 규정해 우열을 구분한다.

MSCI의 ESG 테마 및 세부 이슈 분류 체계		
	주요 테마	세부 이슈
 환경(Environmental)	기후변화(climate change)	- 탄소배출(carbon emissions) - 생산제품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 금융환경 영향(financing environmental impact) - 재난 및 가뭄(climate change vulnerability)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물부족(water stress) - 생물다양성, 토지이용(biodiversity & land use) - 원자재 조달(raw material sourcing)
	오염 및 폐기물(pollution & waste)	- 유독성 배출 및 폐기(toxic emissions & waste) - 포장폐기물(packaging material & waste) - 전자제품 폐기물(electronic waste)
	환경산업적 기회(environmental opportunities)	- 클린에너지 기술(opportunities in clean tech) - 그린빌딩(opportunities in green building) - 재생에너지(opportunities in renewable energy)
 사회(Social)	인적자본(human capital)	- 노무관리(labor management) - 인력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 작업장 건강 및 안전(health & safety) - 공급망 노동조건(supply chain labor standards)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안전 및 품질(product safety & quality) - 화학물질 안전(chemical safety) - 금융상품 안전(financial product safety)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privacy & data security) -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 건강 피해 및 인구통계학적 위험(health & demographic risk)
	이해관계자 상충(stakeholder opposition)	- 갈등유발 소심(controversial sourcing)
	사회적 기회(social opportunities)	- 통신시스템 접근성(access to communications) - 금융시스템 접근성(access to finance) - 헬스케어 시스템 접근성(access to healthcare) - 건강 및 영양 선택 기회(opportunities in health & nutrition)
 지배구조(Governance)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 이사회 구성(board diversity) - 임원 급여보상(executive pay) - 소유권 및 경영통제(ownership & control) - 회계 투명성(accounting)
	기업 행동(corporate behavior)	- 기업윤리(business ethics) - 반경쟁 행위(anti competitive practice) - 조세 투명성(tax transparency) - 부정부패(corruption & instability) - 재무시스템 불안정(financial system instability)

자료: MSCI

# 연금 가입자의 ESG 투자

Editor 윤치선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연구위원

■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성기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ESG 투자의 특징은 연금 가입자들이 ESG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연금 가입자가 실제로 ESG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군은 세 가지가 있다. ESG 주식형 펀드, ESG 주식형 ETF, ESG 채권형 펀드가 그것이다.



ESG 주식형 펀드는 ESG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크게는 액티브 방식과 패시브 방식으로 나뉜다. ESG 액티브 주식형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재량에 의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벤치마크 지수의 구성종목 중 ESG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 비중을 높이고, 등급이 낮은 기업 주식은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패시브 형태의 ESG 주식형 펀드는 일명 ESG 인덱스 펀드라고도 한다. 사전에 설정된 ESG 관련 벤치마크 지수를 그대로 추종해 운용된다.

ESG 주식형 펀드는 세부적으로 보면 운용방식이 다양하다. 국내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해외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어떤 ESG 벤치마크 지수를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펀드별로 운용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종합적인 ESG 지수를 벤치마크로 설정한 펀드와 환경(E) 관련 지수를 벤치마크로 설정한 펀드는 그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펀드 투자 대상, 벤치마크 지수, 운용 방식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다.



ESG 주식형 ETF의 기본적인 운용 방식은 패시브 방식 ESG 주식형 펀드와 비슷하다. 다만 주식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된다는 특징이 있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SG 주식형 ETF만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매매할 수 없다.



ESG 채권형 펀드는 ESG 요인을 고려해 채권 투자를 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회사채 펀드와의 차이점은 ESG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펀드에 따라서는 ESG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ESG 특수목적채권을 편입하기도 한다.

현재 ESG 채권과 관련된 지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 지수를 벤치마크로 설정한 펀드가 많다. 다만 일부 펀드는 자체적으로 ESG 관련 채권 지수를 개발해 벤치마크로 설정하기도 한다. 펀드별로 구체적인 운용전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 대상 채권의 종류나 운용방식, 벤치마크 지수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M**

지금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포털에서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를 검색하세요



# ESG 주식형 펀드, 어떻게 운용되나? 투자 시 고려할 점은?



Editor 육진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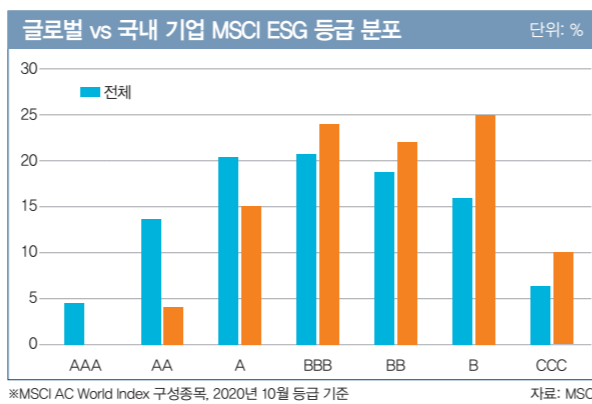
■ ESG 주식형 펀드는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 투자 대상 기업, 어떻게 정하나?

ESG 주식형 펀드와 일반 주식형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트폴리오 구성방법이다. 일반 주식형 펀드의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은 주로 기업의 이익을 보고 결정한다. 그러나 ESG 주식형 펀드는 그보다 앞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인지를 우선 따진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MSCI, Morning Star 등 ESG 등급 평가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ESG 등급을 참조해서 투자 후보 기업들을 선정한다. MSCI의 경우 평균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7단계(AAA, AA, A, BBB, BB, B, CCC)로 전 세계 약 3000개 기업에 대해 ESG 평가 등급을 제시한다.

이러한 7단계 ESG 등급 중에서 몇 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지는 ESG 주식형 펀드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운용하는 '미래에셋 글로벌 혁신기업 ESG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ESG 평가 등급 B, CCC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참고로 B, CCC 기업은 전체 3000종목 중 약 25% 수준에 달한다. 평가 등급이 없는 중소형주의 경우도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ESG 주식형 펀드는 그 편입 기준이 다를 수 있다.

ESG 평가 등급으로 기본적인 투자 후보 기업을 선정하고 나면, 기업의 다른 ESG 관련 정보들도 심도 깊게 살펴보고



나서 실제 투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다. 기업의 연례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ESG 관련 뉴스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 ESG 주식형 펀드도 글로벌 투자는 필수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 ESG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펀드의 투자 대상 기업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봐야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펀드의 투자 지역이다. 즉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는지, 해외의 ESG 경영 우수기업에도 투자하는지 살펴야 한다. ESG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외 기업에도 투자하는 글로벌 ESG 펀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ESG 개념을 먼저 주창하고 준수하기 시작한 미국, 유럽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ESG 등급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전반적인 ESG 등급이 부진한 상황이며, ESG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는 기업 수도 적다. 물론 국내 기업도 ESG 준수를 위해 최근 들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은 ESG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이다. **M**

팟캐스트 노후가 행복해지는 습관

# 투자자와 연금

김대리에서 이부장까지  
모든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투자자와 연금의 모든 것, 매주 30분  
팟캐스트 '투자자와 연금'에서 들어보세요!



## 팟캐스트 '투자자와 연금'을 만나는 법

'팟빵' 혹은 '팟캐스트' 앱 다운로드 후

투자자와 연금 을 검색하세요

# ESG 주식형 ETF, 어떤 연금 투자자에게 좋은가?



Editor **임종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팀장

■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에서 ESG 경영 우수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일반 ESG 주식형 펀드와 ESG 주식형 ETF가 있다. ESG 주식형 ETF는 ESG와 관련된 주가지수를 추종하며,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된다는 특징이 있다.

## 국내 ESG 경영 우수기업 투자 원한다면 ETF 고려하라

그렇다면 두 상품 중 어떤 것이 좋을까. 이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ESG 경영을 잘하는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싶은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까지 투자 대상으로 가져갈 것인지 하는 점을 결정해야 한다. 글로벌 ESG 경영 우수기업들까지 투자대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ESG와 관련된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아직 글로벌 ESG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ESG 경영 우수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ETF 투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ESG ETF가 일반 ESG 주식형 펀드보다 유리한 점은 수수료이다. ESG ETF 수수료는 연간 0.4% 정도로 일반 국내 ESG 주식형 펀드 수수료 외 1/2도 안 된다. 1~2년으로 투자할 때는 이러한 차이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간 투자할 때는 무시 못할 차이가 될 수 있다.

## ESG 주가지수 어떤 것 있나?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SG 주식형 ETF의 상당수는 주로 두 종류의 ESG 관련 주가지수를 추종한다. 하나는 'MSCI KOREA ESG Leaders' 지수이다. 이 지수는 MSCI KOREA 지수의 구성 종목 중 주류, 담배, 도박, 원자력, 무기 등의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배제하고, 그 상태에서 ESG 평가점수가 높은 종목을 선별해 만들어진다. 또 하나의 지수는 'MSCI KOREA ESG Universal' 지수이다. 이 지수는 MSCI KOREA 지수 구성 종목 중, '①MSCI ESG Research에서 평가되지 않은 기업, ②최근 3년간 ESG 관련 논란이 많아 MSCI ESG Controversy 점수가 0점인 기업, ③폭탄, 지뢰 등 무기 관련 기업을 제외하고 종목을 구성하게 된다. Leaders 지수가 ESG 평가 등급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만들어진다면, Universal 지수는 ESG 요소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배제하는 정도로만 구성된 보다 많은 기업이 포함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다.M

주요 ESG ETF 업종 비중			
TIGER MSCI KOREA ESG Leaders ETF		TIGER MSCI KOREA ESG Universal ETF	
업종	비중(%)	업종	비중(%)
1 정보 기술	30.49	정보 기술	38.07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4.20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4.42
3 소재	12.49	금융	10.19
4 산업	11.15	산업	8.74
5 금융	10.73	소재	7.70
6 임의소비재	6.73	임의소비재	7.11
7 필수소비재	6.31	헬스케어	6.04
8 헬스케어	4.56	필수소비재	5.17
9 에너지	3.03	에너지	1.74

\*2021년 8월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과 연금, 노후 대비 정보. 어디가 좋을까요?  
구독하세요!

# 미래에셋투자과연금센터 유튜브 · 팟캐스트 · 페이스북 · 뉴스레터

## 01 유튜브

'유튜브' 접속  
→ '미래에셋투자과연금센터' 검색  
→ '투자과연금TV' 구독



## 02 팟캐스트

'팟빵/podcast' 앱 접속  
→ '투자과연금' 검색 및 구독



## 03 페이스북

'페이스북' 접속  
→ '미래에셋투자과연금센터' 검색  
→ 페이지의 '좋아요' 클릭



## 04 뉴스레터

포털에서 '미래에셋투자과연금센터' 검색  
→ '뉴스레터 신청' 팝업 클릭



# ESG 채권형 펀드 투자매력은?

Editor 신재훈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 ESG 펀드라고 하면 흔히 주식형 펀드를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ESG 채권 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ESG 채권 투자는 무엇이고, 실제 ESG 채권형 펀드는 어떻게 운용되고 투자매력은 무엇일까?

## ESG 채권형 펀드, 어떻게 운용되나?

ESG 채권 투자는 채권에 투자할 때 ESG 요인을 고려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ESG 채권 투자를 기업의 ESG 요인만을 분석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ESG 채권 투자는 기업 이익 및 성장성에 기반한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 분석 방식을 버리고 ESG 요인 분석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ESG 이슈, 리스크 등을 기존의 기업 분석 과정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해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ESG 채권 투자를 할 때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운용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는 ESG 통합(Integration) 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채권 투자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ESG 요인을 투자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통합하는 전략이다. 회사채 채권형 펀드에서 ESG 평가 등급이 높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둘째는 스크리닝(Screening) 전략이다. 이는 ESG 요인을 기준으로 특정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ESG 평가 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산업군이 발행한 채권을

배제하는 것을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방식, ESG 기준에 부합하거나 혹은 ESG 성과가 좋은 기업 및 산업군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 방식이라고 한다.

셋째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전략이다. 이는 ESG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ESG 특수목적채권(박스기사 참조)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ESG 채권형 펀드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다르다. 한 가지 전략만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 전략을 다 사용하는 펀드도 있다.

## ESG 채권형 펀드의 매력은?

연금 투자자 중에서는 주식형 펀드 등 변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예금에만 머물러있기에 현재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다. 이런 사람들은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적합하며, ESG 채권형 펀드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를 전체 퇴



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의 자산을 ESG 채권형 펀드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ESG 채권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ESG 채권 투자는 주로 글로벌 공적 연기금 위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연기금은 ESG 투자를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예컨대 ESG 요인들 중 환경(E)적 요인을 보자. 2021년에 주요 40개국 정상은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재확인하고, 향후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규제 준수 비용, 금융감독기관의 재정 건전성 감독 시 기후 리스크 관리 요구, 기후 관련 위험을 재무적 위험 지표로 정량화해 변환하는 규제 움직임 등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향후 ESG 요인이 투자를 위한 기업 분석 시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자리 잡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민연금을 비롯해 국내 금융기관들도 탈석탄 금융을 선

언하고,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흐름은 ESG 변화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준비한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ESG 채권 투자가 일반 채권 투자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ESG 채권형 펀드의 역사는 짧고, 성과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성과만 보면 일반 채권 지수 대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개발한 ESG 채권 지수의 2016년 이후 성과를 가상으로 분석해보면, 시장 종합 채권 지수와 비교해서 수익률은 유사하지만, 변동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연금 투자자들이 ESG 채권형 펀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ESG 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우선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를 살피는 것이 좋다. 벤치마크 지수가 ESG 지수인지, 일반 채권 지수인지를 봐야 한다. 일반 채권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하는 펀드의 경우 상당 부분은 과거부터 운용되어온 일반 회사채형 단기채권 펀드를 리모델링해서 ESG 채권형 펀드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일반 펀드와 차별화되기 어렵고, ESG 요인이 반영된 성과 평가 또한 어려울 수 있다. [M](#)

### ESG 특수목적채권이란

ESG 특수목적채권은 녹색 채권(Green Bond), 사회적 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 채권(Sustainability Bond)과 같이 ESG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뜻한다. 주식과는 다르게 채권에는 ESG 특수목적채권이 존재한다. 참고로 녹색 채권은 탄소 감축,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등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것이다. 사회적 채권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지속가능 채권은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 성격이 혼합된 ESG 채권을 말한다.

국내 ESG 특수목적채권은 2018년 KDB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한국장학재단 등 공기업 위주로 발행됐다. 2020년부터는 ESG 채권 발행 기업 수와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2021년에는 공기업·금융기관 외에 일반기업의 ESG 발행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ESG 특수목적채권 발행은 2018년 1조2000억원, 2019년 29조3000억원, 2020년 63조4000억원 등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2021년 발행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21년 말 기준 ESG 특수목적채권 누적 발행 규모는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가격과 금리의 폭발력

Editor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대표

■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0.75%가 됐다. 코로나19 이후 첫 인상이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어서 성장에 타격을 덜 입기도 했거나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sub-prime) 사태로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다. 사실 미국 주택시장은 2000년대 초부터 버블 논쟁이 있었다. 이전에는 주택시장 활황 때 붐(boom)이라는 말을 썼는데 2002년부터 비로소 언론에 버블(bubble)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뭔가 거품이 잔뜩 있다는 뜻이다. 이 배경에 금리가 있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 1996년에 미국은 주가

가 한창 오르고 있었다. 기준금리도 대폭 인상했지만 주가는 꺾일 줄 몰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 그린스펀은 1996년 12월 주식시장에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 있는 것 같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 버블이 일본처럼 꺼지는 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1998년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 사태로 금리를 잠깐 인하했다가 1999년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2001년 9월 11일 월드트레이드센터 테러 사태가 발생했다. 게다가 나스닥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다. 그린스펀은 금리 인상 기초를 단숨에 그만두고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를 2000년 6.5%에서 2003년엔 1%까지 떨어뜨렸다.

## 미국·일본 버블 사태가 주는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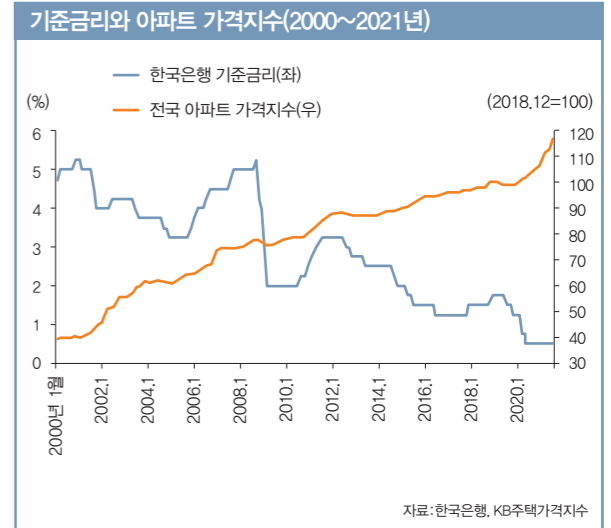
주가는 떨어졌지만 주택가격은 계속 올랐다. 이 시기가 바로

주택가격 버블이라는 말이 등장한 때다. 주택가격 버블 이야기 나온 데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3년 동안 줄곧 인상해 1%에서 5.25%가 되었다. 주택가격이 잡혔을까. 그렇지 않았다. 이유는 미국의 주택대출금리 결정 방식에 있다. 미국 주택대출금리는 우리나라처럼 단기금리에 연동되지 않고 장기금리에 연동된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실제로 장기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기준금리는 4.25%포인트 올랐는데 장기금리는 불과 1%포인트 정도 올랐을 따름이다. 당시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에 장기금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해도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자 그린스펀은 이를 '수수께끼(conundrum)'라고 불렀다.

금리 인상으로 잡지 못한 미국의 주택가격은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처참하게 붕괴했고,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세계경제를 심각한 공황에 몰아넣을 뻔했다. 버블이 붕괴한 이면에는 과다한 차입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2중, 3중의 연결고리로 주택 관련 부채가 확장된 상태였다. 서브프라임 대출뿐만 아니라 CDO, CDS 등 다양한 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과다한 자산 가격 상승과 과다한 부채가 연결될 때 버블 붕괴의 충격이 가장 크다고 한다. 나스닥 버블이 꺼질 때에 비해 서브프라임 사태 때 경제가 훨씬 큰 충격을 받은 이유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까지 인하한 후 7년이 지난 2015년 12월에 가서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 주택가격 움직이는 금리 주시해야

일본의 1990년대 주택가격 버블 역시 이면에 금리가 있었다.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를 대폭 강세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지 않자 미국은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증대를 요구했다. 그러면 일본이 해외 물건을 많이 사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정책금리를 1986년 5%에서 5회에 걸쳐 인하해 1987년 2.5%가 되었다. 일본 기준금리 인하로 이후 1990년대 초 거대한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처럼 주택시장의 큰 흐름



에는 금리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주택시장과 금리의 관계를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부터 줄곧 금리가 떨어졌다. 중간에 오른 기간도 있지만 전체 흐름이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5.25%이던 기준금리가 0.5%까지 하락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대출금리가 주로 단기금리에 연동되기에 영향이 즉각적이다. 기준금리가 장기금리를 통해 주택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중간 완충장치 없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바로 하락한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대출은 5년 전에 비해 550조원 증가해 1800조원이 되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면 기준금리는 1%가 된다. 이후에도 인상 기초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전반적으로 금리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 하락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계속 하락하던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뿐더러 여차하면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돈을 더 빌려도 이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빌리지 않아도 이자가 증가할 수 있다. 자산시장에서 모멘텀의 변화는 주시해야 한다. 일종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그래프를 보고 패닉 바잉(panic buying) 하기보다는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금리의 움직임을 봐야 할 때다. **M**

Editor 이종근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연구원

■ 퇴직연금으로 주식형 펀드 또는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한 번쯤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다. 내 퇴직연금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넘었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다.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등 퇴직연금계좌는 일부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의 보유 비중을 70%로 제한하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둔다. 퇴직연금은 노후생활에 사용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초과했다는 안내를 받은 투자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기 위해 편입할 수 있는 즉,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안내를 받았다면?

과거 투자한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 수익이 늘어 그 평가액이 70%를 넘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메일, 문자 등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사실을 고지한다.

이와 같은 안내를 받았을 때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위험자산 비중이 한도를 넘는 경우는 대부분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평가액이 높아져서 발생하지만, 비위험자산의 평가액이 낮아져서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채권형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 여러 종류의 위험자산에 분산투자한 경우 어떤 상품이 특히 많이 변동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본인의 판단 또는 상황에 따라 위험자산 매도, 비위험자산 매입 등의 과정을 거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 된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안내는 리밸런싱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알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위험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긴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신 위험자산 비중을 70% 아래로 줄이기 전까진 위험자산을 추가 매입할

##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초과됐다고? 어떻게 해야 하지?



수 없다.

한편, 투자자 중에는 퇴직연금계좌에 정기입금되는 금액을 알아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자동매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펀드는 자동매수 비중을 최대 70%까지 설정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은 상태에서 주식형 펀드의 자동매수 비중을 70%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 위험자산 비중이 70%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자동매수 서비스가 중단될까? 그렇지 않다. 현재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상태더라도 펀드 자동매수는 기존에 설정한 비율대로 진행된다.

###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상품

만약 위험자산을 일부 매도하고 비위험자산을 매수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70% 이하로 낮추려는 사람은 어떤 상품을 편입해야 할까.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은 원리보장상품이다. 은행·상호저축은행·우체국 등의 예적금,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보험, 증권사의 원리금보장 ELB 등이 이에 해당된다.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 또는 ETF 중에서도 주식의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40% 이내이고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의 투자한도가 30% 이내인 상품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주식 투자한도가 40% 미만이라도 브라질, 인도 등 투자부적격등급의 신흥국 국공채 또는 투기등급의 회사채 즉, 하이일드 채권 비중이 30%를 넘는 상품은 위험자산으로 봐서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는다.

다만, 채권 ETF 중 미국채10년선물ETF와 같이 선물 등 파생상품을 통해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투자할 수 없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한 ETF는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TDF(Target Date Fund) 중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TDF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TDF란 특정 투자목표시점(타깃 데이트)을 투자자의 예상 은퇴시점으로 삼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의 편입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상품이다. 국내 TDF 상품명에는 2020, 2045와 같이 5년 단위로 타깃 데이트가 명시된다. TDF2050과 같

이 타깃 데이트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주식 비중이 높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식 비중은 점차 줄고 채권 비중이 늘어난다.

그중 적격 TDF란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TDF를 말한다. 먼저, 타깃 데이트가 명시되어 있고, 타깃 데이트와 연동하여 자산배분 등을 조정한다는 운용계획이 투자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 주식 투자비중이 최대 80%여야 하고, 타깃 데이트를 지난 이후에는 그 비중을 40% 이내로 낮춰야 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또한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TDF는 적격 TDF이다.

### 적격 TDF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한도 관리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에서 벗어나고 싶은 투자자는 적격 TDF에 100%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적격 TDF는 TDF 내 주식 비중이 70%를 초과하더라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의 예상 은퇴시점 또는 투자성향에 따라 TDF를 선택하고, 해당 상품에 100% 투자하면 추가적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라면 예상 은퇴시점과 상관없이 주식 비중이 높은 적격 TDF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싶다면 TDF2060 등 타깃 데이트가 현시점에서 더 멀어진 적격 TDF가 출시될 때마다 해당 상품으로 퇴직연금 투자자금을 옮겨주면 된다. **M**

### 위험자산 비중 70% 이상 유지하고 싶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험자산 비중을 투자한도 70% 이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채권혼합형 펀드나 적격 TDF를 활용하면 된다. 채권혼합형 펀드와 적격 TDF는 비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주식에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주식 비중이 70~80% 수준인 TDF2050에 위험자산 투자한도 외 30% 비중을 투자하면 단순 계산으로 전체 위험자산 비중을 90%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원금 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운용계획에 따라 신중히 고민하고 활용해야 한다.

# 전기차 ETF 뜯다는데 내게 맞는 상품은?

Editor 김수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채널마케팅 본부장



어떤 전기차 ETF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 김영웅씨는 심심찮게 보이는 파란색 번호판 차량을 보며 요즘 부쩍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최근 전기차는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이 보장됐고 디자인도 세련됐다. 정부 정책지원으로 경제적이기도 하다. 구입할 때 보조금과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 충전 비용과 톨게이트 요금, 주차비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유지비도 적게 든다. 친환경 운동에 동참한다는 자긍심은 덤이다.

김영웅씨는 전기차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저것 차량의 성능과 가격을 비교하던 중 우연히 한 기사를 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 이상을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이였다. 기사를 읽고 문득 색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현재 전기차 비중이 5% 남짓인데 10년 후 50%까지 늘어난다면 당장 전기를 사는 것도 좋지'만 전

기자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전기차 대신 다양한 전기차 테마에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ETF를 골라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영웅씨는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전기차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전기차 ETF가 출시됐다.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테마 ETF는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주된 투자 대상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 분류에 따라 완성차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ETF와 전기차 소재부품, 그중에서도 주로 2차전지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나눌 수 있다. 둘째는 투자 지역별로 국내형 ETF와 해외형 ETF로 분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ETF가 벤치마크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지, 또는 벤치마크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로 구분할 수 있다.

## 2차전지 ETF 어떤 것 있나, 활용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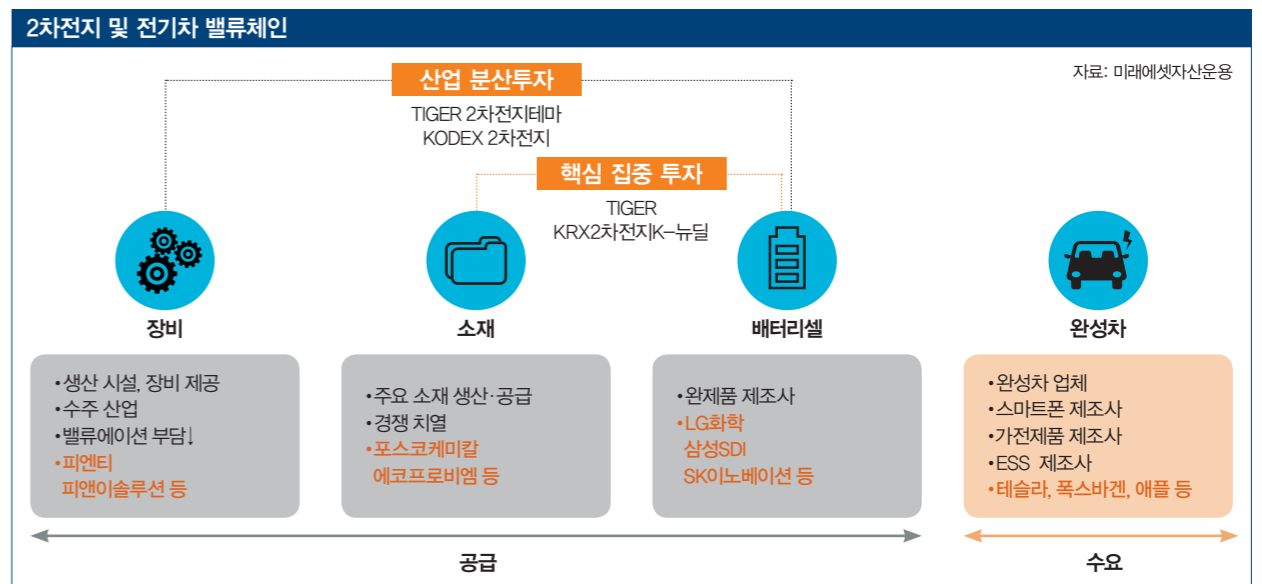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 ETF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분석해볼 것은 전기차 핵심 소재·부품인 2차전지에 투자하는 ETF다. 이러한 유

형의 ETF는 현재 4개가 상장돼 있다. 3개는 국내 업체에 투자하고, 1개는 해외 업체에 투자한다. 국내 2차전지 업체에 투자하는 ETF로는 'TIGER 2차전지테마 ETF' 'KODEX 2차전지산업 ETF' 'TIGER KRX2차전지K-뉴딜 ETF'가 있다. TIGER 2차전지테마 ETF는 국내 배터리셀, 소재,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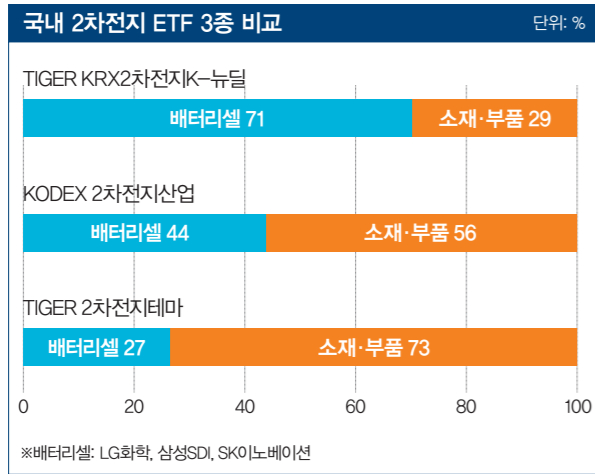
업체를 골고루 편입하고 있어, 2차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반면 TIGER KRX2차전지K-뉴딜 ETF는 국내 대표 배터리셀 업체 3곳에 자산의 75% 정도를 집중투자하고 국내 2차전지 소재 업체에 25%가량 투자하는 ETF다. SK이노베이션·삼성SDI·LG화학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상품이다. KODEX2차전지산업 ETF는 배터리셀과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앞서 설명한 두 ETF의 중간 정도다.

그렇다면 어떤 국내 2차전지 ETF에 투자해야 할까. 국내 2차전지 배터리셀은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35%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점유율 기준 세계 1위다. 따라서 글로벌 전기차 성장과 더불어 대형주 중심의 국내 2차전지 배터리셀 업체가 동반 성장할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배터리셀 업체 중심의 ETF에 투자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 폭스바겐 등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배터리셀 업체보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 장비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소재·부품 중심의 ETF에 투자하면 된다.

해외 2차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ETF로는 'TIGER 글로벌리튬&2차전지 ETF'가 있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채굴, 탐사업체부터 2차전지를 비롯한 완성차 생산업체까지 관련 기업에 폭넓게 투자한다. 투자 대상 국가는 미국,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이다.

해당 ETF를 활용하면 리튬 채굴업체인 앨버말을 비롯, 2차전지 소재장비업체인 창신신소재, 2차전지 대표기업인 CATL과 LG화학, 전기차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와 BYD까지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 ETF 하나로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상품은 환오픈형으로 환율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다.

### 전기차 완성차 업체 ETF, 종류별 특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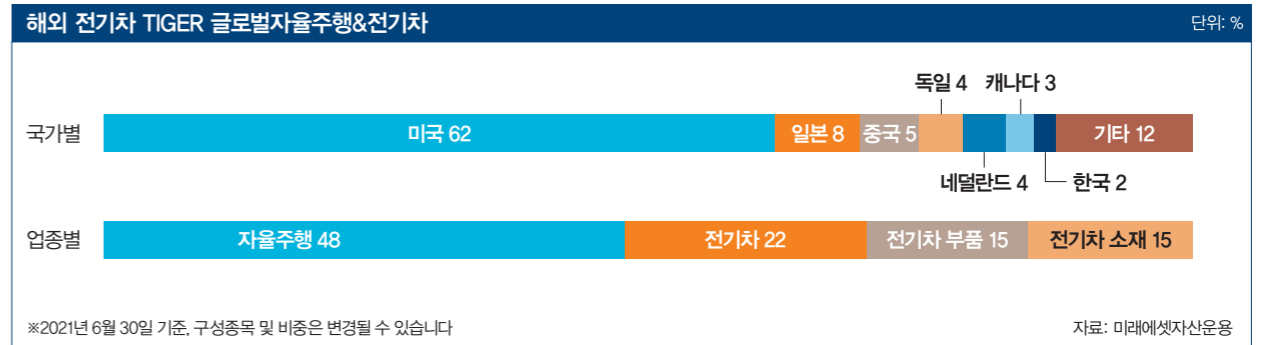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4개가 상장돼 있다. 그중 2개는 국내 전기차 업체에 투자하고, 나머지 2개는 해외 전기차 업체에 투자한다. 국내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는 'HANARO Fn전기&수소

차 ETF'와 'KODEX 자동차 ETF'가 있다. HANARO Fn전기&수소차 ETF는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2차전지 등 전기차 산업 전반에 투자되는 상품이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산업 등에 골고루 투자되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밸류체인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KODEX 자동차 ETF는 한국 자동차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다만 KRX 자동차 섹터를 추종하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에 특화된 상품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는 섹터형 상품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전기차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는 'TIGER 글로벌자율주행&전기차 ETF'와 'TIGER 차이나 전기차 ETF'가 있다. TIGER 글로벌자율주행&전기차 ETF는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핵심인 자율주행 관련 기업(48%)과 전기차 관련 기업(52%)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ETF는 미국·중국 포함 전 세계 10개국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품 및 원자재, 자율주행 관련 기업에 폭넓게 투자된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자율주행 선도기업과 테슬라, 도요타와 같은 완성차 업체에도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 환오픈형 상품으로 환율변동 시 추가 수익(혹은 손실)을 얻을 수 있다.

TIGER 차이나 전기차 ETF는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지닌 중국의 전기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다. 중국 전기차의 매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은 글로벌 최대 전기차 생산·소비 국가로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다. 둘째,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정책적 수혜



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여러 완성차, 배터리, 소재 기업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나 전기차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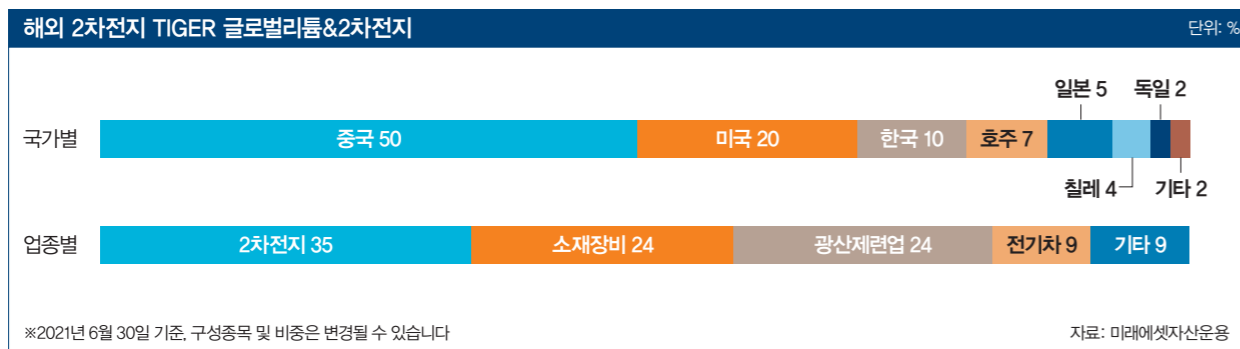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특히 ETF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성장 초기 산업은 기업 간 경쟁 심화로 변동성이 크고 1등 기업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CATL과 같은 일부 종목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불가해 매수할 수 없지만, ETF로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 ETF 역시 환오픈형 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은 이머징 시장이고 전기차는 산업 초기 국면이라서 높은 변동성이 수반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정책 리스크도 유의해야 한다.

### 전기차 액티브 ETF 특징과 투자 매력은?

마지막으로 미래 전기차 및 연관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이 유형의 ETF는 2개가 상장돼 있다. 'TIGER 퓨처모빌리티액티브 ETF'와 '네비게이티브친환경자동차밸류체인 액티브 ETF'가 그것이다.

둘 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변화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전기 수소차와 더불어 자율주행, 공유경제, 통신 인프라, 플라잉카와 우주항공 연관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해당 액티브 ETF는 공모펀드처럼 액티브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선정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된다. 다만 액티브 ETF라 하더라도 위험관리를 위해 비교지수와의 상관관계가 0.7 이상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2차전지 ETF, 전기차 완성차 업체 ETF, 전기차 액티브 ETF를 중심으로 국내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 관련 ETF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밸류체인인 2차전지와 소재, 완성차 및 자율주행 기술 기업 중심으로 개별 산업의 생태계와 경쟁 수준,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게 쉽지 않다면 다양한 밸류체인의 핵심기업에 투자되는 ETF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산업 전반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의 시장 판단을 활용하는 액티브 ETF에 일부 자산을 분산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M**



투자대상	국내	해외
2차전지(소재/부품)	TIGER 2차전지테마	TIGER 글로벌리튬&2차전지
	KODEX 2차전지산업	
	TIGER KRX2차전지K-뉴딜	
전기차(완성차/자율주행)	HANARO Fn전기&수소차	TIGER 글로벌자율주행&전기차
	KODEX 자동차	TIGER 차이나전기차
액티브	TIGER 퓨처모빌리티액티브	-
	네비게이티브친환경자동차밸류체인	-

※2021년 8월 18일 현재, 억원.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

# 중개형 ISA로 국내 주식 투자하면 어떤 혜택 있나요?



Editor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선임연구원

**Q** 직장인 A씨는 올해 새로 도입된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든다. ISA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비과세라고 하는데, 어차피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아닌가? 굳이 ISA 가입이 필요한지, 현재 ISA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상장 주식 매매차익도 과세되지만,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고 들었다. 현재 ISA는 비과세가 2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손해가 아닌가? 달라지는 제도 속에서 ISA는 시기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민의 자산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2016년 처음 선보인 제도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만기가 지나면 비과세(200만~400만원) 및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거듭된 보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의무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의 이월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 무엇보다 올해 2월부터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ISA가 실제적인 만능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7월말 기준 122만 명에 육박하며, 투자금액도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제도가 올해 2월말에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5개월 사이에 엄청난 뭉치돈이 몰려든 셈이다. 운용 내역을 살펴봐도 자금의 50% 이상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돼 있다. ETF 등 상장펀드에 투자된 돈까지 합치면 그 비중이 전체 계좌의 65%에 육박하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국민 재산증식을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 ISA로 국내 주식 투자 시 손익통산 기능으로 손실분 상계 가능

그렇다면 현재 A씨가 일반 증권계좌가 아닌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현재도 국내에 상장된 주식들의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데 굳이 중개형 ISA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손익통산이다.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면, 손익을 구분해 손해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이익에 과세를 하는 반면, ISA는 손익통산 기능이 있어 수익에서 손실

을 뺀 순수익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령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1000만원의 수익이 나고 A주식에서 300만원의 매매 손실이 날 경우, 일반 계좌의 경우 A주식 손실과 상관없이 해외 ETF에서 발생한 1000만원 수익 전체에 세금이 붙게 된다. 반면 이 투자가 ISA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즉 순수익 700만원(이 중 200만원 비과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 한편 ISA에서 국내 주식 투자로 매매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이익과 합산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주식 매매 이익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배당 등 주식 매매차익 이외의 수익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되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주식 투자자들이 얻는 소득은 크게 매매차익과 배당으로 구분된다. 현재 세법상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나, 배당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배당주 투자 시 ISA는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B주식에서 200만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일반 계좌에서는 여기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어 총 30.8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ISA에서 투자한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은 0원이 된다. 배당금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초과 금액에 대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세 가지 큰 변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되면서 아래 3가지 특징을 골자로 투자상품 관련 과세 체계가 재편될 예정이다.

**1)세금 체계가 이분화된다** 현재 금융상품별로 상이했던 세금 체계가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및 ETF, 국내 공모 펀드 등 국내 주식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그 외 기타 금융투자상품(해외 주식 및 ETF, 국내 상장 해외 공모 펀드, ELS 등 파생결합 상품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으로 양분된다. 국내 상장 주식 중심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되며, 해외 주식 등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이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 시 27.5%의 세율이 붙는다.

#### 금융투자소득세 산출방식

{ (국내 주식 매매차익 관련 금융투자소득의 합 - 5000만원)  
+ (기타 금융투자상품 소득 합계 - 250만원) }  
\* 22% (3억원 초과분은 27.5%)

**2)손익을 통산해준다** 현재는 A라는 펀드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B펀드에서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과세기간에 매도한 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펀드 간 순수익은 1000만원-2000만원=-1000만원으로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결손금은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손익통산해서 마이너스, 즉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 금액은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2023년 1000만원 결손금이 발생했고 5년 뒤인 2028년 6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5000만원에 2023년 이월결손금인 1000만원을 적용받아 세금은 0원이 된다.

해9.9%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염려 없이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 과세 체계가 달라진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 주식도 예외 없이 일반주주, 대주주 요건과 무관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주식 및 ETF,



배당 등 주식 매매차익 이외의 수익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되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식 투자자들이 얻는 소득은 크게 매매차익과 배당으로 구분된다. 현재 세법상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나, 배당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배당주 투자 시 ISA는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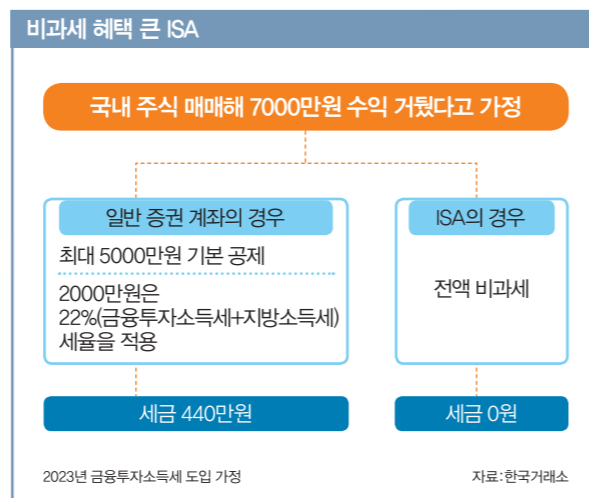
국내 공모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자본소득이라는 특성과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된다. 유념할 점은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제도를 마련해주었지만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면 ISA 활용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중개형 ISA, 국내 주식 매매차익 전면 비과세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안을 통해 ISA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개형 ISA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전면 비과세 카드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금융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ISA 전면 비과세 방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물론 매매차익 5000만원이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액수일 수 있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길거나 투자금이 큰 경우, 또는 투자 중 특정 종목이 큰 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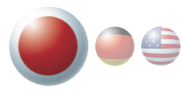
를 맞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특정 연도에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전면 비과세되는 ISA를 기본 매매 계좌로 설정해 두면,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 가령 A씨가 2023년 이후 주식 및 펀드 투자로 7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할 때, A씨가 일반 증권사 계좌를 통해 매매를 했다면 금융투자소득 중 50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고 남은 2000만원에 대해 22%의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돼 세금은 440만원이 된다. 하지만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매매차익 7000만원은 전면 비과세돼 세금은 '0원'이 된다.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자금 규모 및 그에 따른 매매차익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년 이상 국내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ISA를 활용하면 좋다. **M**

# GLOBAL SENIOR STORY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문제는 인류 전체의 화두다.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노령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 삶의 질 개선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어느 나라, 어디에서 '황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을까. 이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할까. <투자자와 연금>은 세계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시니어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선다.



- 일본 요코하마 크루즈에 보낸 스마트폰, '온라인 진료' 신호탄 되다
- 독일 시니어 센터, '액티브 시니어'의 요람이 되다
- 대만 7일, 24시간 쉬없이 연로한 어르신 돌봐준다



Editor 김용철 매일경제TV 국장·매일경제 도쿄특파원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

2020년 2월, 일본 요코하마(横浜)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기 시작하던 그즈음, 이 항구에 정박해 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400명의 전체 승객 가운데 28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도 당시로서는 충격이었지만, 본토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걱정한 일본 정부가 크루즈 승객들의 하선(下船)을 막아선 점이 더 화제였다. 감염된 승객과 가족들이 선상으로 나와 '약을 달라며 SOS를 외치는 모습이 그야말로 공포의 선상(船上)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감염 공포 속에서 승객들이 긴긴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프린세스호 전 객실(2000호실)에 스마트폰이 한 대씩 전달됐다. 무료 배포된 아이폰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라는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돼 있었고, 크루즈 측은 '이 앱에 접속하면 의사와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비대면이었지만 덕

분에 승객들은 의사와 상담하면서 정신적 불안을 떨쳐낼 수 있었고, 필요한 약물을 요청하기도 했다.

### '국민 SNS'의 건강상담 서비스

이 모바일 앱의 주인공은 바로 일본의 '국민 SNS'로 불리는 라인(LINE)이다. 일본에서 라인 가입자는 8600만 명이나 된다. 일본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우리의 보건복지부)이 라인과 손잡고 코로나19에 대한 비상 대응 차원에서 라인의 원격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라인은 사건이 나기 약 3개월 전인 2019년 12월 '라인 헬스케어'라는 온라인 건강상담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예상치 못했던 프린세스호 사태로 이 서비스는 마스크의 큰 주목을 받았다.

'라인 헬스케어'는 전용 앱을 통해 의사와 직접 건강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다. 유료 서비스로 대기 중인 의사와 즉시 채팅하면 2000엔(약 2만



네이버 라인의 원격의료 서비스 '라인 닥터(LINE DOCTOR)' 홈페이지. "언제라도 라인으로 의사의 진료를~"이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 요코하마 크루즈에 보낸 스마트폰, '온라인 진료' 신호탄 되다

고령화·코로나 협공에 일본 의료 암반규제 무너져... '라인닥터' 등 의료 서비스 등장

원, 제한시간 30분), 48시간 이내 의사의 회답을 받을 때는 1000엔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라인 헬스의 의료 서비스는 진료가 아닌 상담에 머물렀다.

이유는 의료 규제 때문이었다. 일본은 섬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곤 원격 진료를 법으로 금지해왔다. 의료집단의 단단한 카르텔이 의료분야의 '암반(巖盤)규제'을 만들어놓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충격에 이어 코로나19가 일본 열도에 창궐하면서 의료 암반규제는 큰 소리를 내며 붕괴하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초진(診)은 물론이고, 복약(服藥) 지도까지 전화 등 온라인 수단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격의료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온라인 진료과목도 암 등 일부 특수 병상을 제외한 대부분 과목이 허용되며, 희망하면 우편으로 약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는 진찰 후 온라인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약사는 전화 등 온라인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우편으로 약을 배송한다'는 이른바 온라인 진료의 'A to Z'가 전면 허용된 것이다.

일본은 2015년 고령자 3500만 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진료를 '재진(再診)'에 한해 허용한 바 있다. 의료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고령자만 18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 후기 고령자의 의료 수요는 당뇨, 혈압 등 만성질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사의 대면진료가 필수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진은 대면진료의 원칙이 유지됐다. 미완(未完)의 해금(解禁)이었다.

### 온라인 진료 영구허용,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

2018년 온라인 진료에 대한 공적보험 수가가 신설됐지만 오랜 시간 굳어져온 단단한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인프라 부족과 함께 무엇보다 의사들 저항 등으로 의료현장에서의 '실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열도를 강타한 코로나의 격진(激震)에 규제의 바위는 무너져 내렸고, 일본 정부는 최근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한시적' 온라인 해금 조치를 항구화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2022년을 목표로 사실상 온라인 진료가 영구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다.

일본 라인은 원격의료 규제가 풀리자 발

소프트뱅크 자회사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헬포(HELPO)' 소개 홈페이지. "마음 편히 상담, 언제라도 부탁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빠르게 모바일 원격의료 서비스를 내놓았다. 당초 계획보다 4~5년 앞당겨 2020년 말 '라인 닥터(LINE DOCTOR)'를 출범시킨 것이다.

'지금 사용하는 라인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라인으로 원하는 병원을 예약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진찰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처방전은 우편으로 보내준다. 라인은 올해 안에 회원 병원을 20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라인은 현재 온라인 시스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온라인 진료를 받는 환자도, 병원도 수수료는 없다. 생태계가 확립된 후 수익 모델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 라인의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라인닥터는 회원병원의 의사면허증과 환자의 건강보험증, 진료영수증 등 화상 데이터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 내 데이터센터에 보관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올해 3월말 해당 데이터를 모두 일본 내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원격의료 대신 '온라인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원격의료라 과거 섬 지방을 대상으로 했던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온라인 진료 시장에는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업체들도 적극 뛰어들었다.

소프트뱅크의 의료 서비스 자회사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는 2020년 7월 '헬포(HELPO)'라는



건강의료상담 앱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는 일반적 의료정보 관련 채팅 서비스다. 자체적으로 직접 채용한 수십 명의 의사, 간호사, 약사가 24시간 대기하면서 질문 발생 30초 이내 답변을 해주고 있다.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는 올해 안에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사전 문진 내용을 전자화해 회원 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진찰시간을 예측하고 예약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또 앞으로 건강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습관병 예측이나 웨어러블기기와의 연동, 피트니스 동영상 서비스 등을 계획 중이다.

의료정보회사 메드레이(MEDLEY)는 일본 온라인 진료의 선두주자다. 이미 2016년 12월 '클리닉스(CLINICS)'라는 모바일 진료 및 복약(服藥)지도 서비스를 선보였고, 2019년 말 도쿄 신항기업 증권시장 '마더스에 상장됐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급성장 중이다. 회원 의료기관과 약국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00곳에 달한다. 전년 대비 5배 늘었다. 병원검색, 예약, 문진, 진찰, 약국에 처방전 송부, 복약지도 종합 서비



스 등 사실상 진료 과정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메드레이의 클리닉스 시스템은 의료 기관용 전자카르텔 시스템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온라인 복약지도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MG-DX의 헬스케어 자회사 '사이버 에이전트'는 '약(藥) 큐빙(택배라는 뜻)이라는 온라인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부터 처방약 당일배송을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고 올해 2월에는 온라인 진료기 능도 추가했다. 예약, 문진, 차트, 영상통화, 결제까지 가능한 토털 온라인 진료 서비스다. 사이버 에이전트는 특히 온라인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약사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앱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자회사 샤프도 의사가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안색을 파악해, 진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암반규제 무너뜨리는 3개의 망치

일본은 아직도 도장(圖章)을 요구하는 행정 등으로 '디지털 지각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정부의 적극적인 온라인 진료 정책에는 일본의 뒤떨어진 디지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도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원격의료는 갈 길이 아직 멀다. 2020년 10월말 기준 온라인 진료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만6600곳으로 전체의 15%에 그친다. 온라인으로 초진이 가능한 곳은 6.3%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달 초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온라인 초진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4~9월 온라인 초진은 월평균 2만 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아직 부족하지만 일정 정도의 의미 있는 수요라고 자평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코로나19로 일상화되고 있는 비대면 사회, 여기에 일본 정부의 행정 디지털화 추진 등 묵직한 3개의 망치가 일본 의료의 암반규제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M**

메드레이의 모바일 진료 및 복약(服藥)지도 서비스 '클리닉스'

일본의 원격의료는 갈 길이 아직 멀다. 2020년 10월말 기준 온라인 진료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만6600곳으로 전체의 15%에 그친다. 온라인으로 초진이 가능한 곳은 6.3%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달 초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온라인 초진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4~9월 온라인 초진은 월평균 2만 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후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노후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 01 노후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02 노후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 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03 노후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 04 노후자산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05 노후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은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 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시니어 센터, '액티브 시니어'의 요람이 되다

40주년 맞은 독일 노이비베르크 '시니어 센터'의 특별한 활동

Editor 김수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박사과정

■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고 아담한 도시 노이비베르크(Neubiberg)가 있다. 이곳의 시니어 센터(Seniorenzentrum)가 지난 7월 22일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오랜 역사를 자랑할 뿐 아니라, 바이에른주에서 문을 연 이후 오랜 기간 시니어들의 주된 활동 근거지였던 이곳이 40주년을 맞는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 시니어 센터는 현재 새로운 건물을 지어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레나테(Renate Krier)씨는 건물을 확충하는 대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사회 연대로 운영되는 독일 시니어 센터

통상 시니어 센터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복지에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독일의 시니어 센터는 운영 주체가 지역사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성격이 다소 다르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 등 큰 도시뿐 아니라 군이나 읍 단위 작은 마을에서도 노인들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센터를 볼 수 있다. 물론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시니어 센터의 활동과 복지를 지원하지만, 이러한 곳들은

레나테씨는 1981년 개원한 노이비베르크 시니어 센터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공시설 성격이 강하다.

한국에서 비슷한 형태의 기관을 찾아보자면, 특히 지방에서 쉽게 발견되는 노인회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노인회관이 소규모로 개인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독일의 시니어 센터는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과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이들이 센터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노이비베르크의 시니어 센터를 오랜 기간 이끌어온 레나테씨는 40주년을 맞은 센터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감회를 느낀다고 말한다. 그녀는 요즘 시니어들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니어들의 사고와 활동이 달라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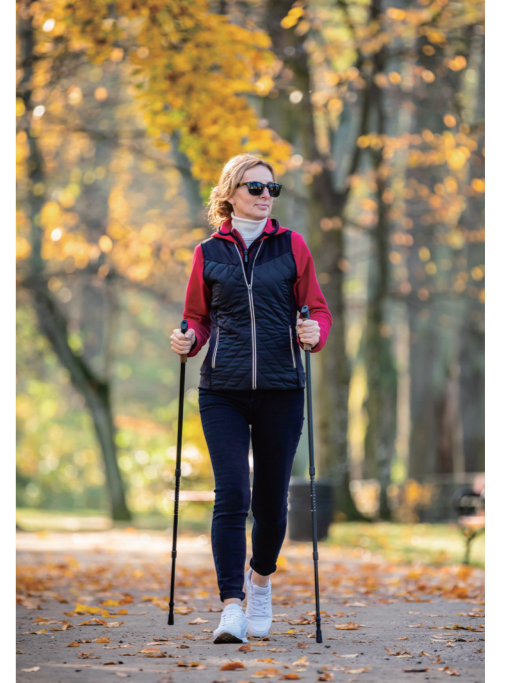
“우리 센터의 여성 시니어들은 매년 7월, 이 지역 축제에 참가하곤 했습니다. 맛있는 케이크를 구워 가는 게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또한 언제나 맡아온 주된 임무였어요. 하지만 근래 센터를 찾아오는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리솜씨로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하지 않죠. ‘시니어’ 하면 떠올리는 정적이고 소극적인 참여 이상을 원합니다. 보다 적극적



이고 활동적인 참여를 원하죠.”

우리 사회가 이제껏 이런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시니어들은 그저 은퇴한 사람들, 노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레나테씨는 시니어 센터가 앞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의 관심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라고 말한다.

독일 시니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노르딕 워킹은 스틱을 활용해 더 많은 근육을 움직이며 걷는 기술로, 인체의 근육 90%를 사용한다.



## 활동적이고 주체적이길 원하는 독일 시니어들

최근 독일의 시니어들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 시니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노르딕 워킹이다. 노르딕 워킹은 스틱을 활용해 더 많은 근육을 움직이며 걷는 기술로, 인체의 근육 90%를 사용한다. 수영에 버금가는 전신운동이고, 스틱을 사용해 네 발로 걷는 효과를 지니는 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운동인데도 시니어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에 힘을 신게 한다. 과거처럼 시니어들이 낙상이나 골절 등을 걱정하며, 가벼운 체조를 즐기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제2의 인생에서도 건강한 신체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시니어들의 분명한 선언인 셈이다.

노이비베르크의 시니어 센터에서는 요즘 노르딕 워킹을 통해 시니어들

끼리 결속을 다지는 활동이 한창이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이 이전처럼 수동적이고 조용한 성향이 아니라는 게 레나테씨의 설명이다. 그녀는 최근의 경향에 맞춰 노인들이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센터에서 이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전한다.

독일 시니어들의 새로운 여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독립적 삶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시니어들의 삶에서 가족들의 영향 및 역할이 크지 않다. 독일 시니어들은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는 경우라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선한다. 이런 인식은 한국과는 사뭇 다른 정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독일의 시니어들로 하여금 은퇴 후에도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하게 하는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베를린 주변 강과 호수에서는 해상 스포츠를 즐기는 시니어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은퇴 후 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손자·손녀에게 얽매어 있지 않은 만큼, 스스로 윤택한 제2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와 달리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치부돼오던 해상 스포츠를 즐기는 백발의 노인이 늘고

작고 아담한 도시 노이비베르크 전경. 노이비베르크 문화 사무소와 많은 협회는 문화 시즌에 청중에게 많은 라이브 경험을 제공한다.

있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독일에는 도시인데도 숲과 강으로 둘러싸여





독일 시니어들은 오디오북 듣기를 통해 지적인 활동을 즐긴다. 시력 저하라는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적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다.

통상 5위 안에 드는, 독일 시니어들의 대표적인 취미활동 가운데 하나다.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거나,

무료하게 흘러보내지 않도록 도와준다. 오디오북을 통해 시력 저하라는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적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독일 라디오 방송에서는 실제 오디오북을 틀어주는 편성도 적지 않다. 코로나 상황과 시니어들의 스마트폰 활용이 맞물리면서, 독일의 오디오북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 시니어 센터의 활동과 계획

이러한 시니어들의 변화를 반영해 노이비베르크 시니어 센터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활동의 가짓수는 물론 분야도 무척 다양하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과거에 비해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센터를 찾는 시니어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시니어들의 적극적인 삶과 그 삶을 지지해주는 시니어 센터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이비베르크 시니어 센터에서는 최신식 시설과 넓은 정원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몸이 불편한 시니어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계단, 복도 등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시니어들이 다양한 취미와 여가활동을 즐기는 시설인 만큼 다양한 체육시설과 레크레이션홀 등 새로운 설비나 공간들도 등장할 예정이다.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이곳은 인근 시니어들의 개별적인 취미생활과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이비베르크 시니어 센터는 40주년을 맞아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도서관들과 협력해 크고 작은 강연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강연 제목은 'Wohnen im Alter'인데 우리말로 하면 '나이들 속에 살다'라는 뜻이다. 코로나로 적극적인 활동은 펼치지 못하지만 노이비베르크 시니어 센터는 최선을 다해 이전에 비해 훨씬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시니어들을 한껏 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노이비베르크 시니어 센터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 **M**

여가를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곳들이 많다. 자연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시니어들에게도 다양한 활동과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즐거움도 높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물론 독일은 예나 지금이나 정원 가꾸기처럼 자연과 환경을 돌보는 일이 노인들의 취미활동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이클과 같은 스포츠, 요가와 헬스 같은 적극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시니어 인구가 확연히 늘고 있다.

독일 시니어들은 오디오북 듣기를 통해 지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즐긴다. 오디오북 청취는

노이비베르크 시니어 센터는 40주년을 맞아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도서관들과 협력해 크고 작은 강연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강연 제목은 'Wohnen im Alter'인데 우리말로 하면 '나이들 속에 살다'라는 뜻이다. 코로나로 적극적인 활동은 펼치지 못하지만 노이비베르크 시니어 센터는 최선을 다해 이전에 비해 훨씬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시니어들을 한껏 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



#투자자산운용TV  
#구독 #좋아요 했더니  
#연금관리법 #투자꿀팁  
내 손안에 쏙!

#### 꿀정보 시리즈 LINE UP

- 투자살롱
- 연금 TALK TALK
- 투자THE연금
- 우먼&머니톡
- 유튜브 세미나 and more!

“투자자산운용TV” 구독은?

NAVER TV YouTube 에서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로 검색하세요!





# 7일, 24시간 쉬없이 연로한 어르신 돌봐준다

대만의 돌봄 서비스 매칭 플랫폼 'Care724' 탄생과 비전

대만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생활 전반에 대한 도우미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Care724는 대만의 돌봄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장(場)을 선보인 것이다.

Editor **지양명**타오 대만 뉴타이베이 거주, 대만 국립청화대 졸업

연로하신 부모님이 만약 갑자기 넘어져서 김스를 하고 통원치료가 필요한데 나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곁에서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또는 부모님이 몸살 기운이 심해 병원은커녕 식사도 챙겨 드시지 못할 정도인데 나는 중요한 일로 며칠간 지방 출장을 가야만 한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취업, 진학, 해외유학, 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긴다. 특히 홀로 거주하면서 거동이 쉽지 않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우, 잠시 시중을 들어드려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자녀 입장에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예상치 못한 곤경에 처했다는 연락을 접해도 바로 시간을 내서 달려가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

님 입장에서도 굳이 바쁜 자녀나 가족이 아닌 가까운 지인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부탁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돌봄 거래를 상품화해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 편리하고 유용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에도 돌봄 서비스는 도우미 혹은 간병인 형태로 시장에 존재했다. 하지만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한 명의 수요자에게 매어있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합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거래 단위가 크고 부담스러운 만큼 소소한 1회성 서비스 이용은 어려웠다.

대만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차 노인 생활 전반에 대한 도우미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니즈를 파악하고 탄생한 것이 대만의 돌봄 서비스 'Care724'다. Care724는 대만의 돌봄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장(場)을 선보인 것이다.

## 멀리 떨어진 부모님 걱정에서 시작된 Care724

Care724 플랫폼은 서비스 수요자와 도우미가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정확하고 공정한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플랫폼이 책임을 지는데 이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도우미)는 정해진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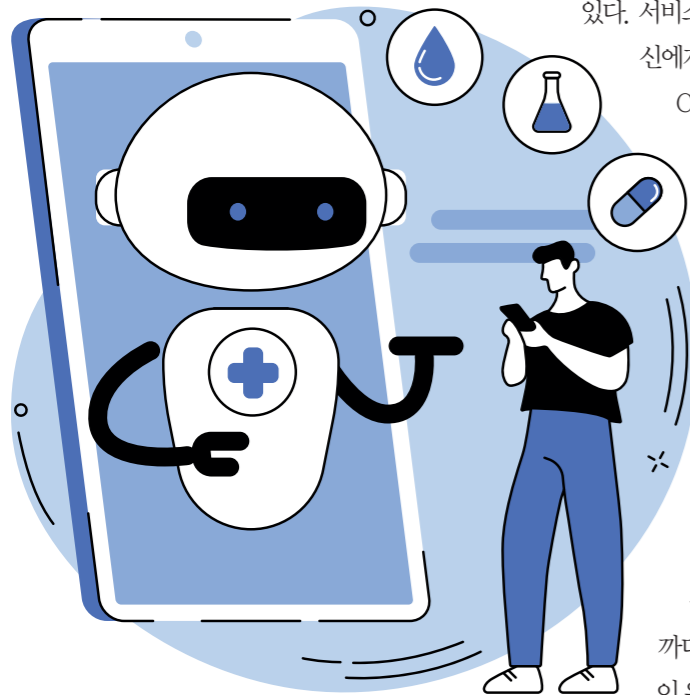
설립자인 추유칭(邱裕庭)은 Care724의 탄생은 공동설립자인 케빈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추유칭과 케빈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컴퓨터 엔지니어 석사 학위를 취득한 동기 사이였다. 학업을 마치고 케빈은 실리콘밸리로 가서 엔지니어 일을 하게 된다. 그 이후 추유칭이 실리콘밸리로 케빈을 만나러 왔을 때, 케빈은 멀리 있는 가족들을 돕지 못하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당시 대만에 있던 케빈의 가족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머나먼 미국에 있는 탓에 케빈은 자신을 대신해 도와줄 도우미 중개업체를 찾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찾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고 모든 도우미 섭외와 결정은 중개업체가 알아서 하는 구조였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것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개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 시발점이 됐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 중개업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우미의 자격은 물론 신분이 불분명한 일도 비일비재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서비스 도우미의 니즈나 우선순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수요자는 도우미의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도우미는 불필요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돌봄 서비스를 마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수고비를 지불했는데, 이 과정이 원만하지 못해 중개업체가 중개비를 떼이거나, 거래 당사자 간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운영책임자(COO)인 수샤오팅(許筱婷)은 "Care724는 7일,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뛰어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컴퓨터로 Care724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 앱을 열고 서비스 지역, 돌봄 대상·내용, 필요시간과 함께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Care724에 돌봄 서비스 요청이 게시된다. 서비스 요청에 제한은 없다. 간단한 가사도움부터 전문성을 요하는 간병도우미까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청 중에서 자신의 조건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도우미가 있으면 수락하기 전에 수요자와의 영상 인터뷰를 요청해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는 자신들의 니즈가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Care724는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최적화된 AI가 신속하게 수요자와 서비스 도우미의 매칭을 추천해준다.

있다. 서비스 도우미 입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때 Care724 플랫폼은 인터뷰에 참가해 제3자로서 쌍방의 인터뷰에 조언을 하기도 한다. 쌍방의 동의 아래 서비스 예약이 성립되면 Care724는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비스 비용 역시 공정가격을 공지하기 때문에 사후에 분쟁 소지가 없다.

무엇보다 서비스를 제공할 도우미의 자격이 특히 중요한데, Care724에 서비스 도우미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은 물론 반드시 범죄경력 증명서, 간병 관련 이력 및 의료·보건 관련 자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도우미가 등록을 신청하면 Care724는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바로 서비스를 시작해도 되는지, 맡을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체적으로 까다롭게 평가한다. 이 검증 과정이 끝나면 정식 도우미로 등록이 완료된다.

“Care724의 예약취소율은 극히 낮아요. 쌍방이 공개된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사전에 영상통화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기 때문이죠.”

수사요팅은 수요·공급자 간의 소통과 함께 도우미에 대한 평점 제도를 운영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강조한다.

Care724 플랫폼은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줄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이 서비스가 안정적인 궤도에 이르자 주 업무인 어르신에 대한 일반적인 간병, 가사도우미, 쇼핑대행 외에 임산부나 어린이 돌봄과 같이 Care724의 플랫폼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요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 AI 활용한 서비스 개발 나서

창업자인 최유청은 “Care724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페이스북 그룹이나 장기요양 기관을 통해 홍보를 했다”며 “앞으로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수요를 통합해서 보험과 활동보조기구, 영양식 제공, 교통지원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Care724는 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최적화된 AI가 신속하게 수요자와 서비스 도우미의 매칭을 추천해줄 것이다. 기술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시대, Care724는 고령사회 대안에서 필요한 누구나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그날을 꿈꾼다. **M**

Care724에 서비스 도우미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은 물론 반드시 범죄경력 증명서, 간병 관련 이력 및 의료·보건 관련 자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도우미가 등록을 신청하면 Care724는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바로 서비스를 시작해도 되는지, 맡을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체적으로 까다롭게 평가한다.



김과장! 뭘 그리 열심히 봐?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



아~ 제가 요즘 노후준비에 관심이 있어서  
팔로우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데?



투자과 연금, 건강 등  
나이 들면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요



오...나도 당장 팔로우 해야겠음

“내 손안의



노후준비”

# OLD

글·그림 - 흥승우



스스로 할머니



뭐든 스스로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어머니.

일 끝나고  
제가 버릴게요.  
두세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코앞인데 뭘 너한테 맡겨.



아이고!!

이런!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지 뭐.  
상황이나 보게.

으이그.  
그러게 그냥  
두시라니까!



오른쪽 아래팔에 금이 갔네요  
깁스 하셔야 합니다.

건달 만한데요.



병원까지 다녀  
오시구선 왜 또  
깁스는 푸시는  
건데요?

불편해~! 약이나  
좀 타려고 그런 거지!



엄마 깁스 푸는 것  
왜 그냥 뒀어!

괜찮다  
니까.

하도 고집을  
부리시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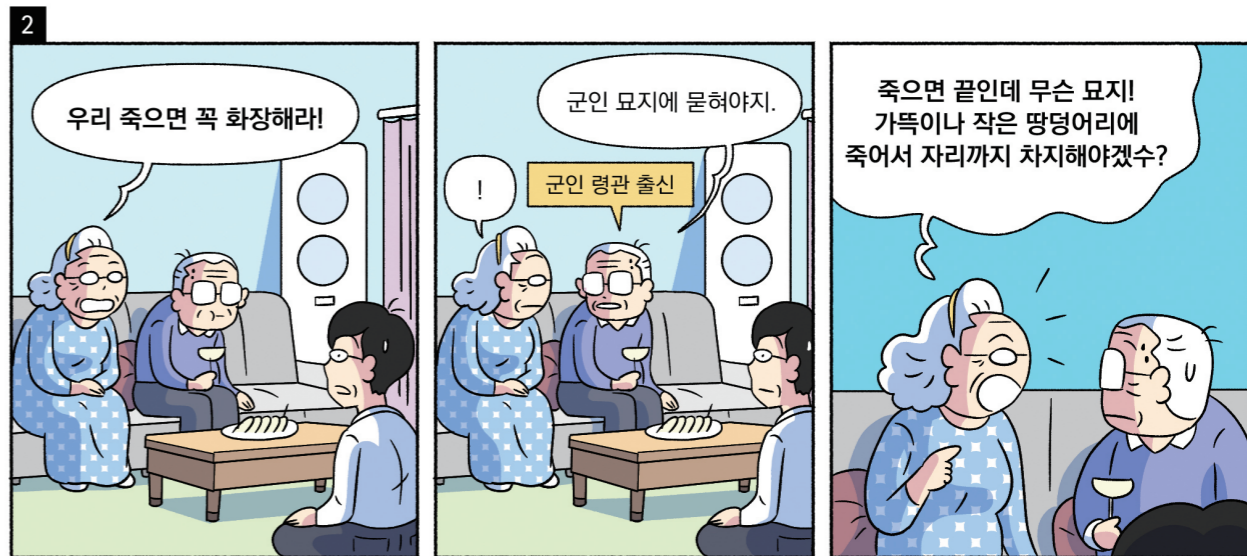
그러다 뼈 안 붙으면  
더 고생하신다고요!



아니,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아들한테  
집짜 될 일 있어?  
우리 상황도 모르고  
그 의사는 자기  
주장만 하고 앉았어!

쓰레기도 스스로.  
병원도 스스로.  
깁스 푸는 것도  
스스로...!

아이고. 우리 스스로 어린이...아니, 할머니!



우리 죽으면 꼭 화장해라!

군인 묘지에 묻혀야지.

군인 령관 출신

죽으면 끝인데 무슨 묘지!  
가뜩이나 작은 땅덩어리에  
죽어서 자리까지 차지해야겠수?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

찾아보니까 해안선 5Km  
안에 뿌리는 건 불법이네요.



배 타고 나가기까지 해야 해?  
뭐 그리 어려워. 그럼 산에 뿌려.  
나무들 영양분으로 쓰게.



개인 사유지에서  
뿌리면 불법이래요.



유골은 지정된 장소에서  
뿌려야 해요.

다른 유골들이랑  
섞이기 싫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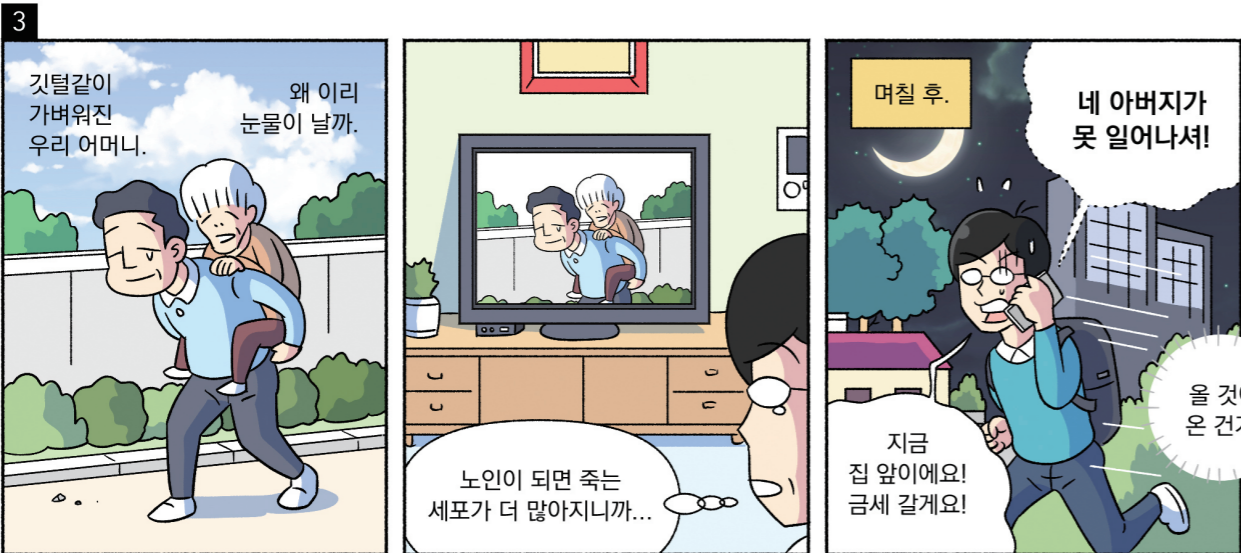
에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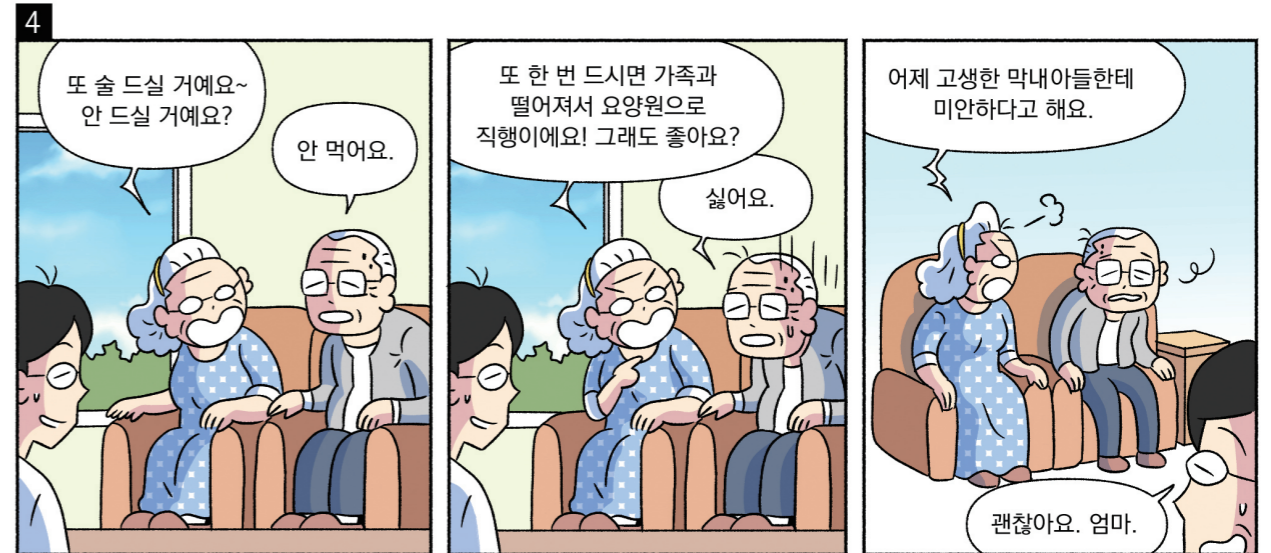
그냥 군인 묘지로  
가야겠다. 이래저래  
니들이 힘들 테니.

죽어서도 내가  
옆에 있으니

당신은 참 좋겠수!



왜 이리 맘이 날까...



괜찮아요. 아버지. 건강만 하세요.

# “우린 한 이불 부부가 아니라 한 창문 부부인가 봐”

Editor 조민희 <별별다방으로 오세요> 저자, 작가·칼럼니스트

■ “이것야. 부부란 그저 한 이불 덮고 살아야 진짜 부부인 거야. 쫓쫓.”

어머니는 딸의 생각이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미연씨는 피식 웃음부터 났지요. 20년 전, 그녀가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에도 어머니는 사뭇 진지하게 그 말을 했거든요. 부부가 살다보면 다투기도 하고, 뜻이 안 맞기도 하지만 절대로 ‘각방 거처’는 하지 말라고, 부부는 모름지기 한 이불을 덮고 살아야 부부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일흔 살이 넘은 지금, 오십을 바라보는 딸에게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와 평생을 데면데면 보내온 어머니의 결혼관이 뜻밖에도 ‘한 이불론’이라 나... 걸으면 무심해 보이던 어머니 아버지도 한 이불 속에서 두 분만 아는 뭔가를 만들어왔던 것일까요? 미연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그래서 엄마 딸도 신랑이랑 악착같이 한 이불 고수하고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셔?”

“니 요전에 니 동생한테 그랬다며, 애들 내보내고 나면 집 한 채씩 각각 구해서 강 서방이랑 따로 살기로 했다고.”

“아, 그거...”

미연씨는 어머니의 말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이던가요? 의뢰인의 집을 대신 보러 다니는 예능 프로그램의 애청자인 미연씨 부부가, 그날은 어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TV를 보다 말고 옥신각신 했었지요. 언젠가는 서울을 떠나 넓고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남편과, 도심 속의 작고 편리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미연씨는 상



맑은 공기와 근처의 숲을 원한다는 남편과, 늙을수록 병원 가까운 입지와 익숙한 지리가 중요하다는 아내. 도시생활이 지겹지도 않냐는 남편과 당신이 지금껏 화분 하나라도 키워보고, 문짝 하나라도 고쳐봤느냐고 묻는 아내. 그러다 어느 순간 미연씨 입에서,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지요. “우리 그럼 한 삼 년 따로 살아보면 어떨까? 애들 다 떠나보내고 각자 원하는 집에 살아보는 거야.”

대방의 생각이 의외로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점점 더 의견차를 벌리며 자기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우리 그럼 한 삼 년 따로 살아볼까?”

맑은 공기와 근처의 숲을 원한다는 남편과, 늙을수록 병원 가까운 입지와 익숙한 지리가 중요하다는 아내. 도시생활이 지겹지도 않냐는 남편과 당신이 지금껏 화분 하나라도 키워보고, 문짝 하나라도 고쳐봤느냐고 묻는 아내. 그러다 어느 순간 미연씨 입에서,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지요. “우리 그럼 한 삼 년 따로 살아보면 어떨까? 애들 다 떠나보내고 각자 원하는 집에 살아보는 거야.”

미연씨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파격적인 말에 스스로도 놀라 남편의 기색을 살피는데, 그는 오히려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들은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근교의 전원주택에 살고, 당신은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 산다?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하듯 만나고, 그거 나쁘지 않은데?”

남편의 즐거운 표정에 뒤질세라, 미연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한 번씩 서로 초대도 하고 말야. 그런데 당신, 혼자 밥 해 먹고 살 수 있겠어?”

“배우면 되지. 그렇잖아도 언제든 여유가 생기면 요리도 배우고 살림도 해보고 싶었어.”

미연씨는 남편의 쿨한 반응에 조금 놀랐습니다. 나 혼자 어찌 살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려다 아예 즐흔하자는 소리 나오겠냐며 언짢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선선하게 나온다면, 가끔 꿈만 껴보던 ‘노년의 별거’가 실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살짝 가슴이 설레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서운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도 그동안 마누라랑 따로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던 거 아닐까? 나야 살림 살며 식구들 뒤치다꺼리하는 일이 힘겨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지만, 남편이야 무슨 이유로 혼자 살고 싶은 걸까? 표정을 보니 아주 즐거워 죽는구먼.

“애, 준우야. 엄마 아빠는 너희들 집 떠나면 각자 원하는 집에서 따로 살아보기로 했단다. 그런 줄 알고 있거라.”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들을 보고, 미연씨는 불쑥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아들은 분명 트악해하며, 반대할 거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 녀석의 반응도 의외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헤헤. 그러시든지요. 그래도 가끔 우리 네 식구 밖에서 만나기는 하는 거죠?”

“그야 당연하지. 그런데 네 동생 생각은 어떨까?”

“개야 뭐, 엄마 아빠 간섭 안 받고 밤새 게임 할 수 있으면 좋아하겠죠.”

“하하하...”

“하하하...”

한바탕 웃음으로 그 애긴 그렇게 대충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십 년쯤 후엔 부부가 각자의 집을 가지고 살아보는 것으로 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더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미연씨는 한 번씩 그 생각을 되짚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정말 우린 늙어서 따로 지내게 될까? 삼 년이라도, 아니, 일 년이라도? 어쩌면 그 기간이 꽤 길어질 수도 있어. 처음 시도가 어렵지, 일단 새로운 생활에 맛을 들이

면 서로가 만족할지 모르지.

“어머, 부럽다, 언니! 형부는 생각보다 참 생각이 개인 분이시네. 우리 유진이 아빠 같으면 어렵도 없어. 내가 왜 늘그막에 혼자 살며 고생해야 하나고 할걸?”

### “엄마들 걱정에 돌이 데이트도 맘대로 못 할걸?”

며칠 뒤 미연씨의 동생에게 그 얘기를 했고, 동생 미진은 언제나 그렇듯 형부와 남편을 비교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이가 나빠서 별저하는 거 아니고, 각자의 공간을 갖고 제2의 연애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연애는 무슨 주책맞게. 그냥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지. 형부나 나나.”

“어쨌든 몇저 보여. 이런 건 법으로 정해야 돼. 누구나 결혼 30년 차에는 3년 정도 안식년을 갖는 걸로.”

“좋은 거면 세상에 이미 퍼졌겠지. 그런데 안 그런 걸 보면 뭔가 부작용도 있는 거야.”

“어떤 부작용?”

“뒤틀리는 나도 모르지만…”

미연씨는 생각해보았습니다. 늘 꿈꾸어오던 독립이건만, 현실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하니 꺼려지는 마음도 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삼십여 년을 함께 지낸 남녀가 각자의 공간을 갖고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은 듣기에 너무도 달콤하여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당장 아이들 거처는? 우리 소유의 이 집은? 생활비 문제는?

그때 동생 미진이 뜬금없는 한마디로 미연씨의 생각을 끊습니다.

“하긴… 어머니들 때문에 안 되겠다.”

“어머니들?”

“십 년 뒤엔 여든 살이 훌쩍 넘으실 양가 어머니들 말야. 아마 언니가 사는 집엔 우리 엄마가 밀고 들어오고, 형부가 사는 집엔 언니 시어머님이 밀고 들어오실걸? 아무래도 혼자 사는 자식이 만만하잖아. 언니랑 형부는 독신의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양가 어머니들 관리를 도맡게 될 것 같아.”

“하하, 그건 생각 못 했네.”

“엄마들 걱정에 돌이 데이트도 맘대로 못 할걸?”

“하하하…”



미연씨는 생각해보았습니다. 늘 꿈꾸어오던 독립이건만, 현실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하니 꺼려지는 마음도 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삼십여 년을 함께 지낸 남녀가 각자의 공간을 갖고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은 듣기에 너무도 달콤하여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당장 아이들 거처는? 우리 소유의 이 집은? 생활비 문제는?

그날 여동생과의 대화 또한 그렇게 웃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놓고 미연씨는 동생의 뼈 있는 농담을 하룻저녁 천천히 생각해보았지요. 그래, 맞아. 현실이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아이들은 어설플 대로 세상에 내보내다 해도 늙으신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의무로부터 벗어날 순 없지. 이래저래 꿈은 꿈으로 끝나는 거구나. 어쩌면 남편은 그런 점까지 미리 내다보고, 어차피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라 생각한 걸까? 그래서 오히려 반색하며 환영했던 걸까?

여자의 마음은 참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실현 가능한가 싶으니 꺼려지고, 안 될 일인가 싶으니 아쉬웠지요.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만의 공간을 가져보고 싶었는데… 평생 맞춰 살기 힘들었던 남편과 쿨하게 떨어져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글쎄 그제 다 헛바람이지 뭐냐. 평생 나한테 충성한 신랑 각시 은공에 서로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늙어도 남자 여자는 어쩔 수 없어.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이 뜨고, 곁에 없으면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헛바람이. 쫓쫓.”

어느새 여동생에게 미연씨네 계획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혀를 차며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반쯤은 장난 섞인 얘기인 줄 알면서도, 혹여라도 훗날 줄흔이니 뭐니 하는 허튼 생각으로 이어질까봐 어머니는 미리부터 단속을 하려는 것이겠지요. 그건 농담일 뿐이었다고, 한번쯤 상상도 못 해보냐고 말대꾸하려다 말고 미연씨는 다소곳이 어머니의 잔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맞아,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하고 수십 년 맞춰 살려니, 가끔은 멀미가 나서 그랬나봐.

“한 부모 밑의 형제도 서로 안 맞는데, 남남끼리 저절로 맞아 들어가겠니? 그래도 이십 년이나 한 이불 덮고 살았으면, 이미 천생연분이고, 내게 맞는 짝이다. 서로 다른 점만 보지 말고 닮은 점을 찾아봐라. 기막히게 들어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네, 네. 명심할게요.”

### 부부의 마음 하나로 모아주었던 것은 ‘전망 좋은 창’

어머니와의 전화를 순순히 끊고 미연씨는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 맞는 짝일까? 그렇다면 어째서 매사에 이토록 의견과 취향이 다른 걸까? 노후의 마지막 집 하나만 보더라도, 극과 극의 서로 다른 모습을 원하고 있으니… 이십 년 세월을 살아왔으면 지금쯤엔 저절로 마음이 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하지 않나?

문득 미연씨는 지나간 과거의 집들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신접살림을 차리고 첫아이를 낳아 키우던 00동의 그 비좁은 전셋집.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둘째가 태어났던 00동의 그 낡은 아파트. 맛별이를 하며 유독 부부싸움도 잦았고 별난 추억도 많은 00동의 그 신축 아파트…

그중 어느 하나도 처음부터 완벽히 그녀 마음에 들었던 집은 없었습니다. 좁고, 낡고, 춥고, 멀고… 불만인 채로, 불편한 채로 어찌어찌 살다보니 ‘우리집’이 되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보니 신기합니다. 이토록 의견이 다른 남편과 그녀가 새로 이사 갈 집을 고를 땐 어찌하여 큰 충돌 없이 매번 합의에 이르렀던 걸까?

미연씨는 남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던 때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가진 돈은 빠듯하고, 원하는 조건은 복잡한데, 중개인이 보여주는 집은 늘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지요. 아내는 허술한 주방을 보고 한숨을 쉬고, 남편은 너무 좁은 아이들 방을 보고 고개를 가로젓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한 내에 새집을 못 구해 낭패를 본 일은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집은 아니다’를 연발하던 그들이 열 몇 번째 집에 이르러 마침내 ‘이 집으로 하자’고 합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였을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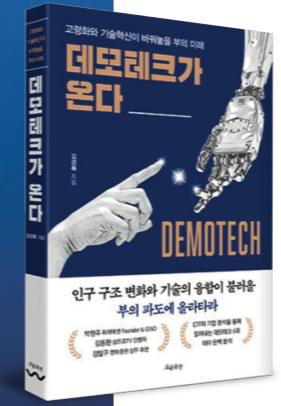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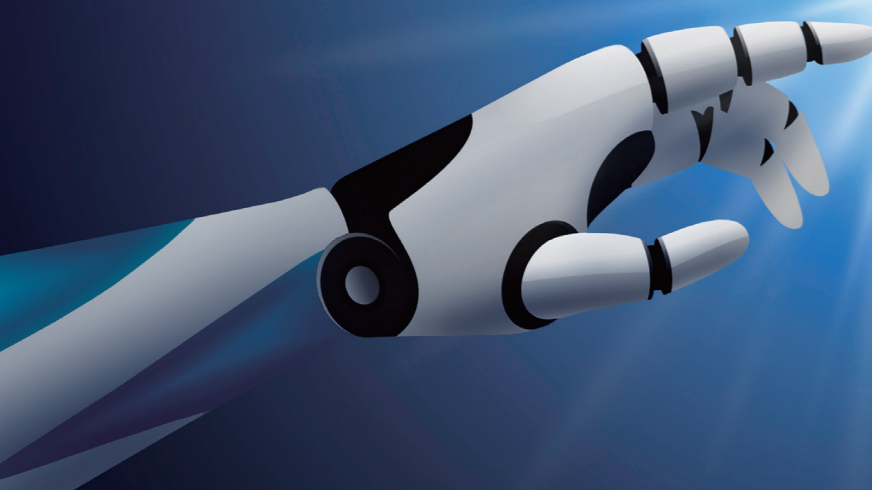
미연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 부부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었던 것은 매번 ‘전망 좋은 창’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00동 빌라도, 00동 꼭대기 층도, 00동 신축 아파트도 모두 전망이 기가 막혔습니다. 거실 창 앞에 서는 순간, 그 모든 우려와 실망이 싹 잊혀지는 그런 집들이었지요. 미연씨도 남편도, 전망의 매력 앞에서는 유독 사족을 못 썼습니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반짝이는 야경을 내려다보는 넓은 창을 위해서라면, 다른 조건들을 쉽게 양보했지요. 그 창 하나를 보고 그 집에서 함께 살아냈던 겁니다.

미연씨는 차를 한 잔 끓여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뒤쪽 베란다의 넓은 창을 통해 인왕산의 푸른 숲과 힘찬 바위가 손에 잡힐 듯 마주 보입니다. 이 창이 너무 맘에 들어서, 수납이 부실하고, 주차가 불편한 집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이 집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삼 년째 살아오면서, 그들 부부는 자주 창밖의 푸른 인왕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때론 같이, 때론 말없이…

오늘도 미연씨는 인왕산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출렁이는 것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 한 이불 부부가 아니라 한 창문 부부인가 봐.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살아온…” **M**

# 인구구조와 기술혁신에 투자하라



데모테크가 온다  
김경록 지음  
흐름출판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 적립식 투자와 더불어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혁신 관련 특정 테마 ETF의 가격 하락에 대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으면, 자산가격 하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자산배분 전략을 현금 흐름과 자산 성장이라는 성질이 다른 양극을 지향하는 '바벨(Barbell) 전략'이라고 부른다.

Editor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전문

■ '연금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질문 자체는 단순하지만 대답은 복잡다기하다. 먼저 '어디'의 문제다. '어디'는 펀드나 예금처럼 구체적인 상품일 수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 대상일 수도 있다. 주식이라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투자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어떻게'도 결코 만만치 않다. 자산배분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펀드나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할지, 그 결정이 쉽지 않다. 자산배분을 하더라도 투자 대상, 투자 지역, 투자 자산 등 결정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책이 있다. <데모테크가 온다>란 책이다. 데모테크란 인구구조와 기술을 뜻하는 영어 단어 Demography와 Technology의 앞머리를 따서 저자가 만든 말이라고 한다. 인구구조와 기술혁신의 트렌드를 이해하면, 연금투자에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인구구조의 변화, '이미 와 있는 미래'

인구구조와 기술혁신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이미 와 있는 미래'다. 고령화 문제부터 살펴보자. 고령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세계는 늙어간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말이다. 유엔에 따르면 2020~2050년 65세 인구는 7억3000만 명에서 15억5000만 명으로 8억2000만 명이나 늘어난다. 지금까지 인류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구구조의 변화가 펼쳐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좁혀 봐도 인구구조의 영향력은 핵폭탄급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매년 세계기록을 경신하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다. 이미 인구 감소도 시작됐다.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국가가 된 것이다.

인구구조가 투자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다. 우선 고령화와 저출산을 '수축사회'로 보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보느냐의 프레임(frame) 문제다. 수축사회로 본다면, 미래는 음울하고 어둡다. 경제는 디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고, 만성적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수축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반대로 기회로 본다면 어떠할까? 눈을 밖으로 돌려 기회를 찾고, 인구 거래 등을 통해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면, 여기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의 저자는 단연코 후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

새로운 기회로 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술혁신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혁신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 혁신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구조적인 것이다. 범위가 넓고 폭도 깊다. 어느 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개인 모두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만일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술혁신이 더해진다면, 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인구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 강력한 두 힘

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그 파위는 더욱 증폭될 것이 자명하다.

인구와 기술은 곧 수요와 공급이다. 인구는 물건을 수요하고, 기술은 물건을 공급한다. 기술혁신으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들 물건을 수요할 고객층 또한 많아질 것이다. 현재 주목받는 범용 기술, 즉 바이오·가상현실·로봇 등은 이미 고령화와 결합하면서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고령화와 기술혁신이 만나는 곳에 거대한 여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거대한 두 물줄기가 만나 융솨음치면서 만들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고령화와 기술혁신으로 수요 확장과 공급 확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거대한 부(富)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저자가 제시하는 향후 새로운 투자 풍경과 전략은 모두 5가지다. 첫째, 부동산과 예금에서 혁신기업 투자로 이동한다. 둘째, 국내 자산에서 글로벌 자산으로 넓힌다. 셋째, ETF와 리츠를 활용해 분산한다. 넷째, 혁신투자와 현금 흐름의 바벨 형태로 자산배분을 한다. 다섯째, 자산 운용 기간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다.

5가지 내용을 다시 줄여 표현하면, '글로벌 혁신기업에 장기투자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해 리스크를 관리하라'가 될 것이다. 혁신기업은 성장성이 높지만 그에 비해 변동성도 크다. 어느 한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산업 전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리스

크가 적다. 성장 시장에서는 잘나가던 기업도 하루아침에 추락한 천사로 몰락하기도 한다. 일례로 핸드폰 시장을 주름잡았던 노키아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회사가 되었다. 그러나 혁신 산업 전체를 사들이면, 한두 기업이 망하더라도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중간중간 급격한 변동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혁신 ETF를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혁신 ETF에 장기 적립식 전략을 적용하면 터보엔진(혁신기업)에 안전벨트(ETF 분산)와 에어백(장기 적립) 두 안전장치가 갖추어진 차를 타는 셈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 적립식 투자와 더불어 현금 흐름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혁신 관련 특정 테마 ETF의 가격 하락에 대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으면, 자산가격 하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자산배분 전략을 현금 흐름과 자산 성장이라는 성질이 다른 양극을 지향하는 '바벨(Barbell) 전략'이라고 부른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저자가 추천하는 투자 대상은 부동산 펀드의 일종인 '리츠'다. 리츠는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수단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소득·인구 측면에서 성장이 멈추며 식어가고 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소득은 늘지 않고 양극화는 심화되며, 인구는 줄고 있다. 과거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젠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하다. 신(新)방정식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어둠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성장의 멈춤은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해답을 우리는 인구구조와 기술혁신이 만나는 데모테크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투자가 미래를 향한 행위라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에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내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M**

